이라크

정보수정일자: 2011. 04.12

작성처: 바그다드 KBC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1
정치사회동향 /2
한국과의 주요이슈 /11

II. 경제

경제동향 및 전망 /12
주요 산업 동향 /19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3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23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4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26
대한수입규제동향 /28
관세제도 /28
주요인증제도 /29
지적재산권 /29
통관운송 /29

Ⅳ.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33
우리기업 투자동향 /3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34
진출형태별 절차 /37
투자입지여건 /42

3. 사업관리
노무관리 /44
조세제도 /45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47

Ⅴ. Business 참고정보

시장특성 /47
물가정보 /51
바이어발굴 /5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52
무역, 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55
이주정착 가이드 /56
출장가이드 /56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70
유관기관 웹사이트 /71

KOTRA 99개 KBC에서 전하는 Global 정보 실시간 제공 서비스

KOTRA InfoPass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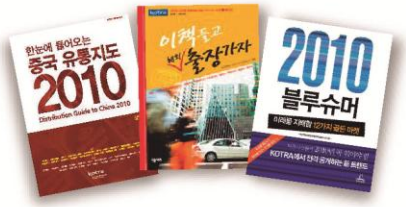
'InfoPass'란? 정보(Information)와 자유이용(Pass)을 결합한 KOTRA 정보 자유이용 서비스로 KOTRA 국가정보의 온 · 오프라인 이용 뿐만 아니라 KOTRA 발간하는 모든 유 · 무료자료를 실시간 받아보실 수 있는 VIP 정보서비스입니다.

1. 국가정보 서비스 (전세계 136개국)

- KOTRA 주재 71개국 및 비주재 관할 65개국 국가정보의 이용 ID부여
  * 비주재국 관할 65개국 국가정보 InfoPass 고객에게 **최초공개**
- 국가정보 (71개국) 전질 인쇄본 무료 제공 (150만원 상당)

2. KOTRA 발간 유 · 무료자료 무료 배송 서비스

- 서비스 이용기간내 발간하는 모든 KOTRA 자료 실시간 배송
  * '09 유 · 무료 자료 (약 180여권) : [유료단행본] '2010 블루슈머', '중국유통지도' 등 21권 / [무료자료] '한-EU FTA 10대 수출유망상품' 등 163권



판매가격(VAT 포함)	대상
500만원/年	대기업, 지자체, 연구소, 대학, 유관기관(협회 등)
250만원/年	개인 및 중소기업

*InfoPass ID는 기관내 공유 가능하나 동시접속은 불가 (ID추가시 20% 적용)

✔ 가입방법 : www.globalwindow.org 내
InfoPass 가입신청서 작성 후 팩스 또는 E-mail 송부
✔ 담당자 : KOTRA 구미팀 정은정, 김한나 대리
✔ Tel : 02)3460-7319, 7322 / Fax : 02)3460-7924
✔ E-mail : cocoej@kotra.or.kr (정은정)
hanna@kotra.or.kr (김한나)

kotra

I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일반사항

국명	이라크 공화국(Republic of Iraq)
위치	중동지역 중북부
면적	437, 072㎢(한반도의 2배)
기후	건조한 사막성 기후, 연간 강수량 170mm 평균 최저 및 최고기온 (7~8월: 24~43도, 1월: 4~16도)
수도	바그다드(Baghdad)
인구	31.4백만 명(2010년, EIU추정)
주요도시	Baghdad(631만 명), Basra(193만 명), Babil(142만 명), Nineveh(135만 명), Dhi Qar(154만 명), Diyala(126만 명), Anbar(126만 명) 등
민족	아랍계 82%, 쿠르드계 13%, 기타 5%(페르시아, 투르크만, 아시리아, 아르메니아 등)
언어	아랍어(공용어), 쿠르드어(쿠르드 지역에 한해 사용)
종교	이슬람교(97%: 시아파 60%, 아랍계 수니파 24%, 쿠르드계 수니파 13%), 기독교 등 기타 3%
건국(독립)일	1932년 10월 3일(영국의 위임통치 종료)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원수: 대통령 Jalal Talabani ○ 취임일 2010년 11월
	○ 총리: Nouri al-Maliki ○ 취임일 2010년 12월(차기총리 내정시까지 수행)

자료: EIU, BMI

나. 경제지표

GDP	US$ 916억 17백만(2010, EIU추정)
실질경제성장률	5.5%(2010, EIU추정)
1인당 GDP	US$ 4,030(2010, EIU추정)
실업률	17.5%(2006, BMI)
소비자물가상승률	2.4%(2010, EIU추정)
화폐단위	Iraq Dinar(ID)
환율	US$1= ID 1,180(2011.4.10)
외채	US$ 526억(2010, EIU추정)
외환보유고	US$ 457억(2010, EIU추정)
산업구조	제조업(58.8%), 서비스업(26.7%), 농업(11.9%)(2007 추정)
교역규모	US$481억(수출), US$411억(수입), 무역흑자 US$70억(2010, EIU추정)
교 역 품	○ 수출: 원유, 대추야자, 양피, 양모 등 ○ 수입: 식품, 의약품, 기계류, 소비재 등

자료: 이라크 기획부, EIU

다. 한~이라크 관계

체결협정	평화협정('85), 체육협력의정서('87), 외교 공관 부지교환 협정('87), 무역. 경제기술 과학협력협정('83), 항공협정('85)
교역규모	○ US$5,629백만(2010년) - 수출: US$1,201백만 - 수입: US$4,428백만
교역품	○ 우리나라 수출: 승용차, 연초류, 화물자동차, 발전기, 자동차부품 등 ○ 수입: 원유, 양가죽
투자 교류	유전개발 투자 진행 중
교민/지사원 근로자	쿠르드 지역에 50 여명 주재 및 거주(2011년 4월) 바그다드에는 대사관, KOTRA, KOICA 직원, 상사주재원 등 23명

자료: 이라크 기획개발부, 한국무역협회, 한국 외교통상부

2. 정치 사회 동향

이라크는 2010년 12월 4년 임기의 정부각료 인선을 마치고 국회 동의를 받음으로써 말리키 총리가 이끄는 2기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라크의 중앙 정부 조직은 대통령, 부통령 2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위원회 (Presidential Council)와 실질적인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 및 3명의 부총리, 그리고 42명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 조직은 전국에 바그다드를 포함 18개 주가 있으며 이들 주지사는 지방자치제에 따라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주의원들이 간선제에 의해 선출하고 있다. 2008년 9월 지방선거법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12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사정에 의해 2009년 1월 31일로 연기되어 실시된 바 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 수반인 탈라바니 대통령은 쿠르드계로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긴 하지만 각 부처의 행정에 대한 실권은 총리가 관장하고 있어 대통령의 권한은 제한적이다. 법치국가연합의 말리키 총리가 내각을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국가 통합 및 국민 화합, 치안 확보 등 국가 재건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정파, 종파간 첨예한 대립, 종파 내 정치세력간 대립, 민병대 및 테러세력의 활동 등으로 정치적, 사회적 안정 확보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라크의 양대 종파인 시아파와 순니파는 정치 이념과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독자적 정파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부 쿠르드지역에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상당한 자치권을 갖고 독자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 정파는 연방제, 석유법, 지방선거, 연합군 지위, 키르쿠크 귀속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말리키 정권은 대부분의 정치세력이 참여하는 일종의 거국내각 성격으로 내각이 정파별 지분에 따라 구성되어 있어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효과적인 국가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정파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과거 후세인 정권 바트당 인사들의 공직 복귀를 허용하는 탈바트당법(De-Baathification law)이 2008년 2월에 제정되었으며, 수감중인 무장 저항세력 용의자들에 대한 사면법을 2008년 3월에 제정하여 국민 화합을 추진한바 있다.

그 동안 여건 미성숙을 이유로 연기되어 왔던 지방선거가 지난 2009년 1월 31일 실시되었으며, 선거결과 말리키수상이 이끄는 법치국가연합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키르쿠크 지역과 쿠르드 지역은 정파간 이견으로 지방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한편, 이라크 경제 재건에 가장 중요한 석유법 제정은 지방정부의 권한 범위, 외국기업의 역할 등에 관한 중앙정부와 쿠르드 지방정부간 이견, 시아파와 순니파간 이견 등으로 2007년 2월 국회에 상정된 이후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정치 일정과 경제 재건의 순조로운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라크 치안 상황은 종전 이후 순니파 저항세력의 준동, 시리아 등지에서 유입된 알카에다의 테러활동 등이 격화되면서 2006년 말까지 악화 일로를 치달았다. 하지만 2007년 2월 미군 증파로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한 미군의 안정화 작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다국적군의 전략이 지역 중심의 치안확보 작전으로 바뀌면서 안바르주 등 순니파 지역에서 자체 지역 치안대(Sons of Iraq; Awakening Council이라고도 함)를 조직하여 지역 치안을 확보하면서 2007년 하반기부터 테러 건수와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고 치안 상황이 다소 개선되었다.

2008년 3월 들어 정부의 민병대 해체 및 정부군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해체를 거부하는 사드르파의 마흐디 민병대와 정부군 간에 남부지역 바스라를 중심으로 교전이 격화되어 수도인 바그다드까지 양측간 교전이 발생, 치안이 다시 혼란스러웠지만, 정부군의 성공적인 군사 작전으로 5월 이후 사드르파는 폭력중단, 무기반납 등에 합의, 치안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이후 전반적인 치안 안정에도 불구하고, 사드르시티 등 바그다드 내 치안 불안 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테러가 계속되었고, 알카에다 잔존 세력 역시 북부지역에 대한 공격 약화,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을 목표로 자살폭탄 테러를 지속 감행하였다.

한편, 2009년 1월 지방선거 전후 치안이 안정되는 듯 하더니만 6월 들어 미군의 도시지역 철수 및 이에 따른 치안권 이양과 2010년 3월 7일(2010.1월로 예정되었다가 연기됨) 총선을 앞두고 테러공격이 다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8월19일, 2009년 10월 25일, 2009년 12월 8일, 2010년 1월 25일 등 연이어 외교부, 재무부, 노동부, 법무부, 내무부, 바그다드 주청사, 주요 호텔을 대상으로 한 대형 연쇄 차량 폭탄테러로 450명 이상이 사망하고, 1,30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는 지난 2007년 4월 이후 최대 규모의 테러로 그간 주로 미군 및 경쟁 종파(동 종파의 모스크 및 동 거주지역의 시장 등 살상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를 대상으로 이뤄지던 테러공격이 총선을 앞두고 치안 안정화를 주요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말리키 총리에 타격을 주고, 이라크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목적으로 주요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이다.

2010년 3월 7일 총선은 끝났으나 말리키총리가 이끄는 법치국가연합이 수니/시아 연합당인 이라끼야보다 2석이 모자란 89석을 차지함으로써 신 정부 구성이 지연됐으며, 9개월 여의 기간이 지난 2010년 12월에야 거국내각 형태의 새 정부 구성이 이루어졌다.

2010년 8월까지 8만 여명의 전투병력을 모두 본국으로 철수시킨 미군은 2011년 12월까지 나머지 지원병력 5만 명도 완전 철수시킬 예정이다.

가. 정치 제도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하고 있는 이라크는 2004.7-2005.4월 임시정부, 2005.5월 과도정부를 거쳐 2006.5월 국민에 의해 정식정부를 출범시킨 후 2010년 12월 2기 정부 구성을 완료했다.

□ 2010년 3월 실시한 총선 결과 정당 별 의석 분포는 다음과 같다.

- ○ Iraqi National Movement(Iraqyia): 91석(세속시아파와 세속순니파 연합)
- ○ State of Law: 89석(시아파 주류, 순니파, 무소속 연합)
- ○ Iraqi National Alliance: 70석(시아파)
- ○ Kurdistan Alliance: 43석(쿠르드 연합)
- ○ Movement for Change(Goran): 8석(쿠르드 개혁정파)
- ○ 기타(소수민족 등): 25석

1) 2차 총선시 주요 정당

□ 법치국가연합 (State of Law)

○ 누리 알 말리키 총리가 이끌고 있으며, 이슬람 시아파는 물론 수니파까지 포함해 40개 정당과 단체로 구성된 연맹체다. 시아파 다와(Dawa)당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쿠르드 정파, 기독교 정파도 포함하고 있다.

○ 안정된 치안확립과 분파주의 타파를 기치로 내건 법치국가연합은 최대 경쟁세력인 INA(정파.종파에 치중, 이란의 영향력하에 있음)와 대비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총선 승리를 통해 말리키 총리의 재임을 노리고 있으나 2009년말에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테러사건으로 인해 치안관리 능력에 허점을 보이며 위기를 맞고 있다.

□ 이라크 국민연맹 (INA; Iraq National Alliance)

○ INA는 이라크 시아파 최대 정당인 이라크이슬람최고회의(ISCI)와 반미 강경 시아파 무크타다 알-사드르 정파, 그리고 다른 소규모 정파의 연맹체로서 친 이란 성향이며, 외세의 직간접적 영향(이란)하에 있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과거 바트당원 511명에 대한 총선출마 금지조치를 주요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다.

○ ISCI는 2009.8월 INA 출범을 준비하면서 말리키 총리의 다와당과도 접촉했지만 INA 주도권을 둘러싼 견해를 좁히지 못해 다와당을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ISCI는 말리키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역임한 바이안 자보르가 이끌고 있다.

○ 알-사드르는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군에 대한 무력저항을 이끌어오다 2009.5월 이를 중단한 뒤 공개석상에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미군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는 강경파다.

□ 이라끼야 (Iraqiya)

○ 수니파인 타레크 알-하세미 부통령, 시아파인 이야드 알라위 전 총리가 이끄는 정당연맹체다.

○ 이라끼야를 이루는 수니파 주요 정당인 국민대화전선(NDF)은 살레 알-무트라크 의원 등 소속 정치인 일부가 사담후세인 정권때 집권당인 바트당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총선출마가 금지되자 총선 불참을 선언했다가 번복했다.

□ 쿠르드 정파

○ 마수드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대통령이 이끄는 쿠르드민주당(KDP)과 잘랄 탈라바니 이라크 대통령이 이끄는 쿠르드애국동맹(PUK)이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이라크 18개주 가운데 아르빌, 도후크, 술래마니야 등 3개주를 통치하는 쿠르드 자치정부의 독립국가 건설을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

○ 쿠르드정파는 이라크 집권 경험은 없지만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집권당 향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킹-메이커 역할을 해 왔다.

□ 이라크화합전선(Iraqi Accordance Front)

○ 수니파 정당연맹체로 이라크이슬람당(IIP)과 지방부족 지도자들로 구성돼 있으나 2005년 총선이후 주요 정치인들이 잇따라 탈당해 당세가 약해졌다.

나. 주요 인사

이라크 정부는 대통령 위원회 3명(대통령 및 부통령 2명), 총리, 부총리 2명 및 34명의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대통령 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3명): 2010년 11월 11일 임명
- Jalal Talabani /대통령(President) (쿠르드)
- Dr. Adel Abdul Mahdi /부통령(vice president) (시아)
- Tareq al Hashimi /부통령(vice president) (수니)

○ 총리 및 부총리(3명)
- Dr. Nouri al-Maliki / 총리(Prime Minister) (시아)
- Rose Nouri Shawese /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쿠르드)
- Hussan al-Shahristani /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시아)
- Saleh al-Mutlaq / 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수니)

○ 각 부처 장관(42aud)

- 내무부(대행) /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 외교부 / Hoshyar Zebari (Kurdistan Alliance, KDP)
- 국방부(대행) /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 석유부 / Abdul Kareem Luaibi (Independent, SOL과 연계)
- 재무부 / Rafia Issawi (Iraqiya, Mustakbal)
- 국가안보부(대행) / Nouri al-Maliki (State of Law, Daawa)
- 전력부(대행) / Hussan al-Shahristani (State of Law, Independent)
- 산업광물부 / Ahmed Nassar Dali al-Karbouli (Iraqiya, Tajdid)
- 무역부(대행) / Rose Nouri Shawese (Kurdistan Alliance, PUK)

- 농업부 / Izzuldin al-Doula (Iraqiya, Iraqiyoun)
- 보건부 / Majid Mohammed Amin (Kurdistan Alliance, PUK)
- 기획부(대행) / Nasser al-Rubaie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교통부 / Hadi al-Aamiri (Iraqi National Alliance, ISCI)
- 수자원부 / Mohaned al-Saad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환경부 / Sargon Lazon Sliwah (Rafidain, Assyrian Democratic Movement)
- 법무부 / Hassan al-Shimari (Iraqi National Alliance, Fadhila)
- 주택건설부 / Mohammed Sahib al-Daraj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도시공무부(대행) / Dindar Najman (Kurdistan Alliance, Islamic Coalition)
- 고등교육부 / Ali al-Adeeb (State of Law, Daawa)
- 통신부 / Mohammed Tawfiq Allawi (Iraqiya, Wifaq)
- 교육부 / Mohammed Tamin (Iraqiya, Hewar)
- 문화부 / Saadoun al-Dulaimi (Wassat, Constitution Party)
- 과학기술부 / Abdul-Karim al-Sammaraie (Iraqiya, Tajid)
- 노동사회부 / Nasser al-Rubaie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인권부 / Mohammed Shiya al-Sudani (State of Law, Daawa)
- 난민.이민부 / Dindar Najman (Kurdistan Alliance, Islamic Coalition)
- 청소년체육부 / Jassim Mohammed Jaffar (State of Law, Daawa)
- 국무장관(외교) / Ali Abdullah al-Sajeri (Wassat, Constitution Party)
- 국무장관(의회) / Saffa al-Din al-Saafi (State of Law, Independent)
- 국무장관(국민화해, 대행) / Ali al-Adeeb (State of Law, Daawa)
- 국무장관(여성, 대행) / Hoshyar Zebari (Kurdistan Alliance, KDP)
- 국무장관(정부대변인) / Ali al-Dabbagh (State of Law, Daawa)
- 국무장관(지방) / Turhan Abdullah (Iraqiya, Turkman)
- 국무장관(관광.문화재) / Liwa Smisim (Iraqiya National Alliance, Sadrist)
- 국무장관(부족) / Hussein Al Shaalan
- 국무장관(NGO) / 미정 (Kurdistan Alliance)
- 국무장관(무임소) / Yassin Mohammed Ahmed (Iraqi National Alliance, ISCI)
- 국무장관(무임소) / Abdul Mahdi Hassan al-Amtar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국무장관(무임소) / Hassan Radia al-Sari (Iraqi National Alliance, Hezbilah)
- 국무장관(무임소) / Bushra Hussein Saleh (Iraqi National Alliance, Fadhila)
- 국무장관(무임소) / Diyah al-Asadi (Iraqi National Alliance, Sadrist)
- 국무장관(무임소) / Salah Mazahim al-Jabouri (Iraqiya, Hewar)

다. 외교관계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후 주변 아랍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권 정부 출범 이후에도 친미, 친 이란 외교노선을 지속하고 있다.

GCC 회원국, 쿠웨이트, 요르단, 시리아, 이란 등과 관계가 호전되고는 있으나 일부 순니 아랍국들과는 시아파 정권이며 친미 정권이라는 이유로 정식 외교관계 개설이 지연되고 있어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지속적 원조 하에 이라크전에 반대를 했던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과의 외교관계도 개선되고 있다.

현 시아파 집권층은 친 이란계로 이슬람 연합당(시아 집권당)의 말리키, 자파리, 알하킴 등 정치지도자들은 이란과의 밀월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리아와는 사담시절 바트당 저항세력

들의 거점으로 국경을 통하여 이라크로 유입되는 저항단체에 대한 통제 문제로 다소 갈등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장세력의 월경에 대한 의구심, 말리키 정권의 능력에 대한 회의,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시아파 정권 등으로 이라크와 외교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2008년 3월 이후 시아파 반군인 마흐디 민병대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진압으로 인해 인근 요르단,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쿠웨이트 등과 관계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UAE와는 2008년 6월 채무 탕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걸프 제국 중 최초로 이라크에 대사관 개설을 논의하고 있다. 쿠웨이트와는 1990년 쿠웨이트 침공으로 인한 배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양국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었으나, 최근 양국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개선 기미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라크를 탈출하는 기업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 UAE, 요르단, 시리아 등 인접 아랍 국가들이나 이라크 국적자에 대한 체류비자 획득, 입국 규제 등이 이라크인의 애로사항이다.

라. 주한 주재국 기관

한국에 소재하는 이라크 대사관은 2006년 11월에 개설되어 활동 중이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이라크 정부부처의 사업 참가자격 제한

일부 이라크 정부 부처에서는 참가가 가능한 국가를 미국, 유럽, 일본 등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한국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한편 석유부의 경우 2008년 4월 향후 이라크 유전개발에 참가할 기업들 35개사를 선정하면서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 개발 계약을 한 일부 한국기업은 배제했다. 배제 사유는 이라크는 중앙정부에서 원유 및 가스전 개발사업을 국유화하고 있으나, 쿠르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고, 외국기업들에게 유전개발사업의 지분권을 판매했기 때문이다.

나. 대 이라크 수출, 계약 건에 대한 국내 보험 부보

이라크 직수출에 대한 국내 보험 미부보, 공사 계약분에 대한 보험 미부보, 대 이라크 자본재 수출에 대한 보험 미 적용 등으로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출여건은 불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이라크 국내에서는 운송 보험이 커버되지 않고 있어 현지 도착도 CIF 기준 수출 시 국내 수출업체들은 이라크 국내 운송에 따른 도난 위험과 경비회사 채용에 따른 추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이라크 입국 제한

우리 정부는 2004년 김선일 사건 이후 신변안전을 위하여 한국인의 대 이라크 입국을 엄격히 규제해 원칙적으로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의 이라크 내 주요 프로젝트 진출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유럽 국가 등 여타 경쟁국들은 오일분야, 건설 등 다수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자국민의 이라크 입국과 관련, 전면 금지가 아닌 여행 위험지역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2006년 8월 이후부터 요르단 주재 지상사의 쿠르드지역 단기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고, 20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일정기간 내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해 기업 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어 입국 제한을 다소 완화했다.

그러나 2007년 8월 이후 아프가니스탄 납치사건의 여파로 이라크를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고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 연장되어 사안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부여한 점을 제외하면 종전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라. 한-이라크 경제공동위 개최

2007년 2월 제2차 한-이라크 경제공동위 개최에 이어 4월 말리키 총리의 방한으로 한국과 이라크 상호 간 경제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제3차 한-이라크 경제공동위는 이라크 국내 정치 안정의 지연 등으로 계속 연기되다가 2010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011년 4월말에 말리키 총리가 다시 한국을 방문 예정으로 양국간 경제협력 여건이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II. 경제

1. 경제동향 및 전망

가. 경제 동향

□ 경제성장 회복 추세

이라크 경제는 지난 걸프전 이후 UN 경제제재 및 2003년 이라크전쟁으로 인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전기, 석유 등 각종 기간산업 시설물이 파괴되어 2003년 전쟁 전까지 250만 배럴을 생산하였던 석유는 전후 생산 및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2003년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 rate)을 -33.1%로 끌어내렸다. 2004년부터 석유 생산 및 수출이 재개되어 성장률을 23%로 끌어올렸지만, 2005년-2007년은 저항 세력들의 테러로 경제 불안이 지속되어 성장률이 부침을 거듭하다가 2008년부터 유가가 상승하고 치안 회복에 따른 민간부분 경제활동이 시작되자 2009년 성장률은 4.5%, 2010년은 5.5%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1-2012년은 지속적인 국제유가 강세로 7% 전후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물가인상 둔화

물가는 보조금 축소로 인한 유류와 관련 교통비 증가, 생필품 부족으로 인한 가격 급등, 수입물가 인상 등으로 2006년과 2007년에는 소비자물가가 각각 53%, 30.7% 폭등했다. 그러나 이라크 중앙은행의 물가 억제를 위한 이라크 디나르화 절상과 이자율 인상 조치 등 금융긴축정책으로 인해 물가 급등세가 진정되면서 2008년에는 2.8%로 크게 둔화되었다. 2009년에는 소비자물가가 2.8% 하락하고, 2010년에는 2.4%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안정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국제원자재 및 소비재 가격의 급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기본 생필품 공급부족으로 이들을 암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상승률은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재정수지 악화

재정수지는 2005-2008년까지 계속된 흑자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유가하락에 따라 189억 달러, 2010년 119억 달러, 2011년에는 134억 달러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향후 인프라 재건, 공공부문 고용확대 등 정부지출 증대로 재정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국제원유가의 상승으로 재정적자 축소를 기대하고 있다.

□ 무역수지 흑자 지속

유가인상 및 석유생산 증가로 무역수지는 2006년 118억 달러, 2007년 104억 달러, 2008년 216억 달러의 연속 흑자에 이어 2009년에는 유가하락으로 흑자규모가 51억 달러로 감소했다가 유가가 회복된 2010년에는 다시 70억 달러의 흑자를 보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11년에는 171억 달러, 2012년에는 98억 달러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고용창출 확대노력 강화

전후 폐쇄된 정부 소유 공장 재가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말 시멘트, 섬유, 제약, 석유화학 등 21개 국영기업을 선정, 국영은행인 Rasheed와 Rafidain의 대출을 통해 정상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8년 4월에는 산업부 주관으로 석유화학, 식품 및 제약, 건설, 엔지니어링, 서비스, 섬유 등 6개 분야 국영기업 45개사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치안상황, 사회간접자본의 낮은 신뢰도 등에 따른 외국기업의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단시일 내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의 주요 경제지표

구 분	2009**	2010**	2011***	2012***
GDP(경상가격, US$10억)	74.7	91.6	97.9	111.8
실질경제성장률(%)	4.5	5.5	6.5	7.4
소비자물가상승률(%)	-2.8*	2.4	6.2	6.1
원유생산량(1,000배럴/일)	2,430	2,398	2,829	3,253
1인당 GDP(PPP기준, US$)	3,750	3,882	4,055	4,282
수출(FOB기준, US$10억)	40.9	48.1	67.6	71.4
수입(FOB기준, US$10억)	35.8	41.1	50.5	61.6
경상수지 (US$10억)	1.6	3.1	12.8	4.5
환율(평균) ID : US$	1,170*	1,170	1,170	1,170
대외부채(연말, US$10억)	73.0	52.6	45.3	44.5

자료: EIU (* actual, ** estimate, *** forecast)

나. 자유 시장경제원리 확산 및 규제 철폐

지난 30년간 사담 후세인 정권에 의한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이 2003년 폐지되고, 경제 관련 법규를 대폭 개편해 자유개방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무역부문에서는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5% 일괄 적용하고 수입규제도 대부분 폐지했다.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이전 정권에서 지원해 오던 석유, 전기 및 각종 생필품 등에 대한 정부 보조금도 축소하고 시장 가격에 근접하도록 가격 인상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라크의 신경제 정책은 USAID의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계획에 의거해 Bearing Point사가 주도하여 중앙은행, 재무부, 무역부, 상공부와 더불어 무역, 투자, 민영화 등에 관한 전반적인 조직체계, 법령을 정비해 오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금융부문을 제외한 전 산업부문에 대해 외국인의 투자, 부동산 소유 등을 허용하고, 국영기업 민영화 등 혁신적인 경제정책을 채택, 추진하고 있다.

경제분야의 주요 개선사항은 법적 장치 면에서 기업법, 은행법, 증권법, 외국인 투자법, 기금 조성법, 공공조달법, 중앙은행 관리법 등 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전환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재정부문에서는 단일 관세율 제정 및 관세율 인하, 누진소득세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연금 인상, 균형예산 편성, 국채 발행, 지자체간 예산 편중 해소 등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 시행하고 있다.

- ○ 금융. 통화: 신권 발행, 변동 환율제 정착, 이자율 자유화, 시중은행 자본금 증액, 중앙은행 독립, 재정 적자 해소용 통화발행 금지, 물가 안정
- ○ 석유 부문: 3개 국영 석유공사 통합 작업(진행 중)
- ○ 통신 부문: 위성방송 허용, 휴대전화 서비스 개시, 유선 전화망 정비
- ○ 전력. 상수도: 국내 전기 생산은 7,000MW, 수입 1,000MW 로 총 8,000MW의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현재 수요는 16,000MW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2년 여름 이전까지 5,000MW의 발전설비 공급을 추진 중이다. 향후 2015년까지 10,000MW의 추가 발전설비를 공급할 예정이며,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신설 예정인, 정유공장, 제철소, 석유화학 공장 등에 필요한 전기 공급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도 미흡한 수준이며, 점진적으로 보급을 확대 추진 중이다.

다. 무역 자유화

경제 및 무역 자유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불필요한 무역 규제가 폐지됐으며 재건세 명목으로 5%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각종 경제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WTO 가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료회의 직속으로 신설된 WTO 가입 전 담위원회에서 국내 법규를 WTO 원칙에 맞도록 고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라. 외국인 투자법 제정

2006년 10월 10일 이라크 국회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를 규제하는 신 투자법을 통과시켰고, 동년 12월 대통령의 승인과 공표를 거쳐 정식 제정했다. 신 투자법의 주요 내용은 내외국인간 차별 철폐, 외국인 100% 단독투자 허용 등으로 주변국에 비해 앞선 제도를 갖추고 있다. 투자 유치를 위한 국가기관인 국가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를 2007년 11월 설립하고 주정부별로 투자위원회를 설치하여 투자 관련 조직을 갖춰 나가고 있다.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은 법적인 측면보다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이며 ① 인허가를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축 ② 투자보장협정 체결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마. 재정 및 통화정책(Fiscal & Monetary policy)

1) 정책 추이(Policy trends)

이라크의 경제정책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일산 250만 배럴의 지속적 생산 수준까지 원유 생산량을 증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민에 대한 기초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폭적인 원유 증산은 필연적으로 외국 메이저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석유법 제정 이전에는 달성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기초생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200여 국영기업에 대한 민영화 등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나 이 또한 정부의 취약한 행정력, 치안 불안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현재는 외국 투자기업이나 민간기업에 합작 투자, 또는 장기 임대방식 등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 산업부에서는 2008년 4월 두바이에서 공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2차례 더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민영화 노력을 적극화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장기적으로 민간부문 육성을 통해 재정의 지나친 석유 의존도를 줄여가고자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영기업 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나,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재정 정책(Fiscal policy)

정부 재정은 2004년 재정 적자가 GDP의 40%까지 확대되었으나, 이후 석유수입 증가 및 예산집행률 저조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 예산집행률 저조는 정부의 사업집행능력 부족, 치안불안에 따른 외국기업의 재건사업 참여기피, 정부의 부패 등에 기인한다.

이라크의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십억ID)

	2006	2007	2008	2009
수입(Revenue)	**59,717**	**51,314**	**50,775**	**50,174**
- 원유 수출 등	59,717	51,314	50,775	50,174
지출(Spending)	**65,880**	**61,483**	**62,610**	**70,186**
- 일반행정	45,923	43,499	44,174	55,840
. Wages & Salaries			12,695	20,149
. Pensions			4,357	4,598
. Goods & Services			7,874	11,114
. Interest			760	689
. Benefits(Subsidies)			2,326	4,231
. Grants			2,020	2,704
. Social Spending			5,572	5,570
-재건사업(Development Spending)	18,968	17,630	18,436	14,346
. Development & reconstruction projects			12,904	10,467
. Electricity			3,543	2,604
. Oil			1,990	1,275
재정수지	**-6,163**	**-10,169**	**-11,835**	**-20,012**

자료: EIU, Iraqi Parliament (편성기준)

2009년 예산은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판단 아래 당초 790억 달러로 편성하였으나 유가가 예상보다 훨씬 밑돌자 2008년 11월에 670억 달러로 1차 하향 조정되었고, 이는 다시 2009년 1월에 620억 달러로, 3월에 배럴당 50달러란 가정하에 589억 달러로 삭감 조정되었다.

향후 3~4년간 인프라 재건, 공공부문 고용 확대 등 정부 지출 증대로 고유가로 인한 석유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정 수지는 다시 악화되어 2009년 재정적자가 20조 120억 디나르 (GDP의 19.6%), 2010년 24조 4,700억 디나르(GDP의 21.2%), 2011년 27조 6,810디나르 (GDP 의 23.8%)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라크는 재정 지출의 중점을 경제 회복, 특히 석유부문의 회복에 두고 이에 필요한 지출을 늘려나가고 있다. 일반적 재정지출은 공공부문 인력 조정작업이 정치적 이유로 지연되면서 석유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절감 효과를 상쇄하여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 수입은 95% 이상을 석유 부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편중도가 심한 실정이다. 비석유 부문의 수입(Revenue)을 얼마만큼 늘리는가에 정책 과제가 주어져 있으며, 전후 초기에는 대외 원조 유입 증가에 치중하다가 관세, 세금을 통해 수입원 발굴을 늘려가고 있다. 그러나 수입관세 5%가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어서 세수 확보를 위해 판매세제(sales tax)와 같은 보완수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는 재산세 등과 같은 직접세 관련법이 없다.

중·단기적으로는 석유수입이 국가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할 것이다. 비록 전쟁 직후에는 석유수출 회복세가 매우 느려 동결자산 해제라든가 미국을 비롯한 대외 원조자금이 주요 재정 수입원이 될 수 밖에 없었으나 2006년 들어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고 원유수출 물량도 늘고 있어 석유수입이 국가재정에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바. 통화정책(Monetary policy)

이라크 금융부문은 전(前) 정권하에서 대다수 국민의 외면을 받았고 극히 소수에게만 대출 특혜를 제공해 왔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변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에 필요한 자본금 확충과 은행 재건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는 사기업 친화적 금융부문 건설을 위하여 중앙은행법을 제정해 통화정책을 담당할 독립적인 중앙은행(Central Bank of Iraq; CBI)을 설립했다. 2003년 9월 은행법을 제정하여 민간은행의 최소 법정자본금을 100억 디나르로 규정하고 2003년 10월 28일 중앙은행을 통해 이라크 17개 민간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결제, 송금, 외환 신용장 개설업무를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2004년 1월 금융시장을 개방하여 외국은행인 영국계 HSBC, Standard Chartered Bank, National Bank of Kuwait(NBK) 등이 지점 개설 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이들 은행들은 치안상 이유로 영업 개시를 미루고 이 중 HSBC와 NBK가 이라크 은행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간접 진출을 하고 있다. 이후 레바논의 Byblos Bank가 2007년 아르빌 지점을 개설했으며, 인근 중동국의 Arab Bank(바레인), Turkish Agricultural Bank(터키), Bank Milli Iran (이란) 등이 바그다드에 지점을 개설, 영업하고 있다.

2003년 10월 새로운 디나르 화폐를 발행하여 대미 환율을 미$1=2,050ID로 정했으며, 이후 이라크 디나르화는 지속 절상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간 자금시장, 기본 대출이율, 최소 지급준비금 보유제, 일일 외환거래시장, 정부 증권시장 등의 도입을 통해 이라크 경제의 유동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자유 변동 환율체제를 고수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라크 디나르화의 강세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물가 인상이 다소 억제되곤 있으나 이라크의 인플레이션이 공급측면의 것으로 기본 생필품의 공급 부족으로 물가 통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이라크 금융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 이라크 국영은행: 대형 은행 2개(라피다인은행, 라시드은행), 특수은행 4개
- ○ 민간은행: 17개, 최소 자본금 100억 디나르, 외국인 49%까지 지분 허용
- ○ 외국은행 지점: 최소 자본금 500억 디나르, 100% 외국인 출자 가능

사. 분야별 현안

1) 정부 보조금 축소

보조금 지급은 정부 재정을 고갈시킬 뿐 아니라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고 각 경제주체의 효율성을 심각히 저해하므로 사회적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부 보조금에 의한 가격구조 왜곡을 축소하고 현금 보조금 지급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6년 1월 단행된 유류가 300% 인상 조치였다.

밀가루, 설탕, 홍차, 식용유, 우유, 소금 등 기초 식품을 매우 싼 값에 배급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데 매년 46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라크 국민의 약 60%가 이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나 높은 실업률, 치안 불안 심화라는 대내적 여건으로 인해 폐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배급이 필요 없는 중산층 이상 고소득계층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향후 2년간 약 25%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 석유제품(Oil Products)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석유제품은 오랫동안 아주 낮은 가격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를 지탱하기 위해 정부는 정유공장에 현 국제시세인 배럴당 40달러의 0.5%에 불과한 21센트를 받고 원유를 공급하고 있다. 정유공장에 공급되는 연간 약 55만 배럴을 2005년 회계연도 기준 유가로 계산하면 약 52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투입한 셈이다. 그 결과 휘발유를 리터당 50디나르(1.36센트, 2005년 기준)에 판매할 수 있었다. 석유부문 총 보조금은 연간 71~7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IMF와 에너지 보조금 폐지를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유류 보조금을 축소해 왔다. 그 결과 2006년 8월 기준 유류제품 가격은 전년동기 대비 약 300% 인상하여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다. 2007년 7월에는 등유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류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폐지했으며, 이에 휘발유 가격도 15% 추가 인상됐다.

□ 전기/수도(Electricity and Water)

석유제품과 마찬가지로 전기, 수도 요금도 정부에 의해서 싼 값에 고정되어 있다.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7%를 차지하는 가정용 전기료가 주요 대상으로 연간 전력부문 보조금은

약 40억 달러에 달했다. 수도료 또한 보조금 대상이다. 1인당 국민소득 향상에 보조를 맞춰 공공요금의 점진적인 인상을 검토 중이다.

2) 이라크 화폐가치 강세 지속 추구

달러화 안정적 보유로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디나르는 2006년 3분기까지 안정적인 1달러당 1,475 디나르를 유지했으나, 2006년 11월 이후 외환시장의 불안 속에 디나르의 대미 환율이 인하 추세를 보이면서 12월 말에는 1달러당 1,300 디나르를, 2007년 5월 평균환율은 1,262 디나르를, 2007년 12월에는 1,217디나르를 기록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이라크 중앙은행이 국내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인상에 대처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여 나가고, 이라크 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 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율 절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고 있는 결과이다. 2008년은 1,172 디나르가 되었으며, 2010년 이후에는 1,180 디나르로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3) 파리클럽 등 대 이라크 채권 80% 탕감 순조

19개 파리클럽 회원국은 이라크 채권 420억불 중 80%에 해당하는 336억 달러를 3년에 걸쳐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대 이라크 최대의 채권국가(284억 달러)인 쿠웨이트 정부와 일본 정부도 파리클럽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80% 탕감안을 확정시켰다. 약 950억 달러로 추산되는 외채 중 약 67%는 GCC국가 채권이며 이 중 쿠웨이트 채권이 284억 달러, 사우디가 250억 달러에 달한다. 19개 파리클럽 회원국의 대 이라크 채권은 약 420억 달러에 달하지만, 이라크 정부가 예산에 반영한 외채 이자 상환액은 2005년에는 2억 달러, 2006년에는 2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제1차 걸프전 직후 UN안보리 결의안 1483호에 의해 쿠웨이트에 지불하도록 결정된 배상금(이라크 원유 및 가스 수출 금액의 5%. 종전에는 25%)과 총 외채의 12%로 추정되는 민간 상업차관에 대해서는 탕감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채권은 현대건설 등 민간 무역 및 건설부문 채권이나 현대건설은 2005년 말 80% 탕감에 이미 합의했고 잔액은 장기 상환 받기로 했다. 2008년 6월 GCC국가 중 UAE가 최초로 이라크의 채권을 탕감했으며, 쿠웨이트와도 채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4) 소득세(판매세) 부과

CPA 명령 37호(03.9.19)에 의거 2003년 4월 16일부터 2003년 말까지 모든 소득세, 부동산 임대세 부과를 면제했다. 단, 특급호텔 및 식당 부가세, 부동산 거래세, 차량판매세, 유류세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4/5성급 호텔 및 레스토랑, 부동산 거래세율은 10%이며, 2003년 9월 19 일부터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담배, 알콜 등 기타 몇몇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Excise tax) 15%를 부과하고 있다.

면제기간이 종료된 2004년 1월부터는 개인 및 법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최고 한도는 15%이다. 1982년에 공표된 과세 부과 관련 절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정부세입으로 추정하고 있는 개인 소득세 총액은 2004년 1,000만 달러, 2005년 3,000만 달러이며, 법인 소득세 총액은 2004년 2,000만 달러, 2005년 5,000만 달러이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2005년 조세 수입은 2,503억 디나르(미 170.8백만 달러)이며, 2006년은 3,880억 디나르(미 258.7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55% 이상 세수가 늘어났다.

5) 원유 수입(Oil export proceeds) 및 정제능력 확충 절실

연간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액은 총 재정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원유 정제능력은 일일 약 70만 배럴로서 북부 Baiji, 중부 Dora, 남부 Basra에 3개 국영 정유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전쟁 이전 이라크의 정유공장들은 77% 가동률을 유지했으나, 전쟁으로 인한 설비 파괴와 노후화, 원유와 전력 공급의 차질 등으로 2005년에는 가동률이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국내 석유제품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상당 물량을 인근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2007년 8월 현재 전체 휘발유의 58%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축물량도 등유 3일분, 디젤유 2일분, 액화가스와 휘발유 1일분으로 정부의 목표치를 훨씬 밑돌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석유제품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억불을 들여 기존 정유공장들을 개보수 및 확충하고, 27.5억 달러를 투입해 일산 30만 배럴의 Nassiriyah 정유공장, 7만 배럴의 Koi 정유공장(쿠르드 지역) 등을 신규로 건설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6) 기금 및 외환관리

외화 수입의 90%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의 경제재건은 석유자원의 개발 속도에 비례한다. 이라크 내 1,150억 배럴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세계 확인 매장량의 약 10.7%나 되는 물량으로 2,618억 배럴의 매장량을 가진 사우디, 이란에 이어 세계 제 3위의 산유국이다. 따라서 이라크가 얼마나 빨리 원유를 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라크 재건속도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UN은 안보리 결의안 1483호에 의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통성 있는 이라크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국과 영국에 대해 이라크 원유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라크 원유 판매수익은 이라크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제3의 독립적인 회계감독을 받는 이라크 개발 기금에 귀속되어 있다.

2. 주요 산업 동향

가. 개요

이라크는 걸프전 이전까지 나름대로 제조업이 육성되었으나 걸프전 이후 UN 경제제재 체제 하에 산업부문 역시 제재를 받아 제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고, 그나마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기존 산업마저 파괴되어 현재는 석유산업 및 농업을 제외한 여타산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전쟁 중에 파괴된 전기, 도로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의 복구가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산업 회생도 늦어질 전망이다.

이라크의 제조업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수입대체 산업 육성 시기였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는 중공업화, 비석유화 정책 시기였다.

그러나 이라크의 제조업은 석유연관 산업을 의미할 정도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주요 제조업도 석유 탐사·채굴을 비롯해 정제, 천연가스, 유화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석유 산업은 주로 바스라 및 키르쿠크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밖에는 시멘트 산업이 대표적인 비석유 산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1970년대 후반 중공업화 정책에 따라 알미늄 제련, 선박수리 프로젝트를 시도했었으나 실패했으며, 프랑스 기업의 도움으로 코르알 주바이르 지역에 제철소를 건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0년 말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로 정부의 수입대체 및 중공업화 정책이 중단되다시피 했으며, 이후 부족한 투자 재원을 민간투자 활성화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취해졌다. 그 결과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 종료 후 한때 경공업의 민영화가 추진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민영화에 따른 생필품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국민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 의 가격 통제가 강화되었고, 그 후 UN의 경제제재가 발동되면서 민간 제조업 열기가 급속 도로 식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도훅,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등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UN이 석유식량 프로그램(Oil for food program) 추진을 위해 이 지역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이 곳을 비행금지 구역(No-fly Zone)으로 선포함에 따라 타 지역에 비해 민간 제조업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나. 향후 투자계획

투자를 자율화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신 투자법이 2006년 12월 의회를 통과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갖추었다. 특히 각종 규제 철폐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소기업 대출제도, 창업투자자금 대출 제도와 같은 미시적인 파이낸싱 제도도 발표했다.

이라크 산업광물부는 200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 일환으로 2007년 1월에 60개의 국영기업을 외국투자 유치를 통해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2008년 4월에는 두바이에서 산업광물부 주최로 'Investing in Iraq's Industrial Sectors-Public & Mixed'를 개최하여 석유화학, 식품 및 제약, 건설, 엔지니어링, 섬유 등 6 개 분야의 45개 국영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유치를 추진해 이 중 3개 국영기업의 합작투자를 성사시켰다.

다. 산업별 현황

*** 석유산업**

□ 석유

석유산업은 이라크의 핵심 산업으로 GDP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라크의 확인 매장량은 1,15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란에 이어 세계 3위의 석유 매장 국가이며, 잠재매장량은 4,000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라크 매장량은 1990년 걸프전 이전에 조사된 것으로, 이후 본격적인 탐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매장량 확대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는 확인된 80개 유전 중 24개 유전(총 매장량 866억 배럴 규모)을 개발하고 있으며, 석유법이 통과되면 외국투자유치를 통해 신규 유전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생산 유전은 남부의 Rumaila, Bai Hassan, Zubair, 북부의 Kirkuk 등이다. 남부는 바스라항을 통해, 북부는 송유관을 통해 터키의 케이한(Ceyhan)항에서 수출되고 있다. 신규 유전개발

대상은 남부의 Majnoon, West Qurna, Nahr Bin Omar 등이다. 신규 유전개발을 통해 이라크 정부는 목표 생산량을 일산 600만 배럴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라크 유전의 채굴비용은 배럴당 0.6달러로 여타 중동지역의 평균 비용 1.5달러에 비해 생산 단가가 절반 이하 수준이어서 경제성이 뛰어나다. 이라크 석유자원의 특징은 탄소 함량이 높고 황 함량은 낮아 고품질, 생산광구의 원유 저류층이 650m 이내에 위치하여 생산단가가 낮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라크의 석유 생산량은 전쟁 이전인 2000년에 일산 257만 배럴을 생산하였으나, 2003년에는 전쟁으로 인해 133만 배럴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후 노후화된 유전 설비 개보수를 통해 2006년 190만 배럴, 2007년 235만 배럴, 2008년 241만 배럴, 2009년 245만 배럴 등 꾸준히 증산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연도별 이라크 석유생산 및 수출실적

(단위: 일산 천 배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생산	1,329	1,995	1,816	1,902	2,350	2,410	2,449
수출	818	1,545	1,410	1,500	1,930	1,910	1,977

자료: EIU

석유 수출규모는 2003년 일일 82만 배럴로 2000년 이후 최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이후 송유관과 수출 터미널의 시설 개·보수를 통해 2006년 150만 배럴, 2008년 191만 배럴, 2009년에는 198만 배럴까지 늘어나 국가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석유법 제정을 통해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생산 설비의 증설과 개선을 도모하려 하고 있으나, 석유법의 제정 지연, 치안불안에 따른 외국석유기업의 투자 기피 등으로 당분간 석유생산의 큰 폭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새로운 석유법은 2007년 5월 제정 시한을 넘기고 7월 법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 중이나 유전 관리권한을 둘러싼 쿠르드 지방정부의 반발, 정파간 첨예한 이해 대립, 석유자원에 대한 민족주의적 입장 등으로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3년 전쟁 이후 최초로 2009년에 2차례 실시된 중앙정부 유전 입찰에서 10개 광구(약 700억 배럴)에 대한 입찰이 낙찰되어 2010년 1월 계약 체결이 완료되었다. 2009년 6월에 실시된 1차 입찰은 유전 6개와 가스전 2개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루마일라 유전을 제외한 7개가 유찰되었다. 그러나 이라크 정부는 1위 응찰사와 협상을 지속하여 쥬바이르, 웨스트 꾸르나1 유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계약하였다. 2009년 12월에 실시된 2차 입찰은 10개 유전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마즈눈 등 7개 유전이 낙찰되었다. 외국사와 컨소시엄으로 참가한 우리나라의 가스공사도 쥬바이르 및 바드르 2개 유전 확보에 성공하였다.

한편,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북부 쿠르드 지역에는 쿠르드 지방정부가 2007년 독자 석유법을 제정, 석유개발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2009년 말까지 34개사와 33개 광구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대해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쿠르드 유전개발 참여기업에 대한 중앙정부 유전입찰 참여 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 중에 있다. 현재 노르웨이의 DNO사가 유전 개발에 참여해 석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의 Hunt사, 오스트리아의 OMV사 등 외국기업들도 쿠르드 지방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도 석유공사 콘소시엄이 2007년 11월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라크 송유관은 4개 라인으로 북부 키르쿠크-남부 유전-바스라항 라인, 키르쿠크-터키 케이한항 라인, 키르쿠크-시리아 바니아스 라인, 이라크-사우디아라비아 라인이다. 이중 전쟁 이후 북부 키르쿠크-바스라항 라인, 키르쿠크-터키 케이한항 라인 2개 라인만 가동되고 있다.

□ 석유 정제

석유 정제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이라크는 1990년대에는 일일 정제능력이 60.3만 배럴을 기록하였으며, 정제 공장은 Baiji, Dora(Baghdad 인근), Basra 등 3 곳에 집중되어 있다.

2003년 전쟁 이전에는 정제능력의 77%를 가동하였으나, 전쟁 이후 설비 노후화, 전력부족, 원유 공급의 불안정 등으로 설비 가동률이 대폭 줄어들었다. 2005년 이후 정제능력의 1/3 수준만 가동되어 휘발유, 디젤유 등 유류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당량의 유류 제품을 인근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정제능력 확충을 위하여 대규모 정제설비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Nassiriyah 지역에 일산 30만 배럴 생산 정유공장 입찰실시 결과, 영국의 Foster Wheeler가 낙찰되어(2009년 4월) 향후 2년 내 완공을 추진 중이다. 이 외에도 일산 7만 배럴의 쿠르드 지역 Koi 공장, 14만 배럴의 중부지역 Nahrain 공장 등의 신설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기존 정제 설비인 Sohar Refinery Company(SRC), North Refining Company(NRC), Midland Refining Company(MRC) 등의 정제 설비를 3단계에 걸쳐 개·보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가스

이라크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3,170십억 큐빅 미터에 달하며, 최근에 4,245십억 큐빅 미터의 추가 매장량이 발견되어 이라크는 천연가스 시장에서 주요 공급국가로 부각됐다. 천연가스의 70%는 유전과 연결되어 있어 원유생산 증대에 따라 가스생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스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 부족, 수반가스 소각처리 등으로 생산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반가스는 유전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가스로서 가스생산 시설이 없는 경우 원유와 같이 생산되는 가스는 일반적으로 소각 처리된다.

나. 농업(Agriculture)

비석유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로 한때는 자급자족이 가능했었으나 잦은 전쟁 등으로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잃어 왔다. 주요 농작물은 밀, 보리, 쌀, 면화, 대추야자 등이며 특히 이라크는 대추야자 세계 제1의 수출 국가였다. 이 중 절반 정도는 강우량이 충분한 북부 평야지대 및 산간계곡에 있으며 나머지는 유프라테스 강 및 티그리스 강을 끼고 있다.

농업 관련 기업들은 대부분 국영기업 형태인데 경영부실과 종자개량, 수리시설 개량 실패 등의 문제로 지난 15년간 생산량이 연평균 1.1%씩 감소해 왔으며 부실한 관개수로 및 과잉 방목, 사막화 등으로 환경문제를 일으켰다. 1990년 이후 농업부문 생산량은 연평균 2.6%씩 감소했다.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시작된 UN의 석유식량 프로그램도 농민의 생산 의욕을 크게 감퇴시켰으며 그 결과 2003년 이라크의 곡물 총 생산량은 350만 톤으로 전년의 410만

톤에 비해 60만 톤 정도 감소했다. 이런 감소세가 2004년에도 이어졌으나 2005년에는 회복세를 보여 340만 톤을 생산했다. 전쟁 이후 이라크의 식량 자급율은 43%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부족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식량 수입규모가 30억 달러에 달한다. 2009년 현재 이라크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는 농사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종자 개량, 비료 투입 등을 통해 얼마든지 농작물 산출량을 늘릴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다. 이라크 국토면적 중 약 27%인 800만 헥타르가 경작가능 면적이며, 미 농무성 추산에 의하면 이들 경작가능 면적 중 절반 정도인 400만~500만 헥타르만 농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농지 이용률이 저조한 까닭은 농기계 부족, 관개수로 미비 및 낮은 수매가격에 기인한다.

한편,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UN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현금화 전환, 농산물 매매시장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현재 무역부 산하 Public Distribution System 이 식량을 배급하고 있다. 양곡 판매상도 활동 중이며 농민들도 재배대상 품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요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전에는 인근 아랍국가 중심의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전쟁 이후에는 자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서방 국가와의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WTO 가입을 위해 국내 경제체제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나. 지역 무역협정 체결 현황

□ 범 아랍 자유무역협정(GAFTA)

GAFTA는 아랍 공동시장 구상에 따라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 중 17개국이 1997년 2월 17일 협정문에 서명함으로써 1998년 1월 1일부로 공식 발효된 지역 무역협정이다.

아랍연맹 회원국 중 모리타니아, 알제리, 소말리아 등 저개발 5개국은 제외됐다. 협정의 주요 내용은 2004년 말까지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교역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 역내 무역 자유화를 통한 아랍 경제 건설이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로 회원국 간 무역거래에서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가 철폐됐다.

GAFTA 협정은 6장 22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 일반 조항, 실질 조항, 이행 감독, 분쟁 해결, 기타 조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요르단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2009년 9월 4일, 요르단과 교역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이라크의 수출실적과 수입실적은 국제원유가격의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원유가 수출실적의 98%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원유가격 상승으로 수출실적이 증가하면 수입실적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수출상품이 원유에 국한되어 있지만, 수입은 다양한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서 대부분의 소비재를 수입하고, 막대한 원유를 수출하는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정제 시설의 절대 부족으로 정제된 석유제품도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다.

전쟁 직후 원유 수출물량의 감소로 부진했던 이라크의 수출실적은 2006년부터 수출물량 확대 및 국제원유가 상승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수출은 305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으며, 그 이후 2008년까지 높은 수출증가추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2009년부터 국제원유가격이 다소 안정세로 접어들게 되면서 이라크의 수출실적도 다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가 2005년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1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국제유가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이라크의 이 같은 무역흑자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라크의 연도별 교역 실적

(단위: 미$ 백만)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추정)	2009(추정)	2010(추정)
총수출(fob)	17,782	23,697	30,529	39,587	58,806	40,857	48,067
총수입(fob)	19,954	20,002	18,708	16,623	37,219	35,768	41,133

자료: EIU

이라크 정부의 무역통계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석유제품과 기타 제품을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다. 실제 무역실적을 기준으로 가장 최신 통계가 가능한 2007년을 볼 때 이라크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이며 미국이 전체 수출의 47%를 차지해 이라크의 최대 수출국이다. 이라크의 주요 수입국은 시리아, 터키, 미국, 요르단 등으로 시리아가 전체 수입시장의 1/4 이상을 차지해 최대 수입국이다.

2007년도 교역 상대국 비중

이라크의 주요 수출 국가		이라크의 주요 수입국가	
국가명	점유율(%)	국가명	점유율(%)
미국	40.6	시리아	30.0
이탈리아	34.2	터키	19.3
스페인	14.0	미국	10.8
캐나다	13.5	요르단	4.9
기타	4.1	기타	35

자료: EIU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한국의 대 이라크 수출은 2005년 이라크정부가 2년 이상 된 중고차 수입을 금지하는 연식 제한 조치를 실시하여 전년 대비 45%나 급감한 6,818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06년에는 수출이 회복세로 반전되어 59% 이상 늘어난 1억 892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국의 대 이라크 수입은 2006년 9억 569만 달러 이며 이중 원유가 9억 515만 달러로 전체 수입의 99.9% 를 차지했다.

2007년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2% 이상 급신장한 2억 986만 달러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수입은 30억 7,977만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40%라는 폭발적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원유 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이다.

2008년 들어와서도 큰 폭의 수출 증가세는 지속되어 연간 총수출이 3억 6,831만 달러로 전년 대비 75.5%나 늘어났다. 이는 승용차, 제조담배, 무선전화기의 급격한 신장세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수입은 이라크 정부의 일부 한국 기업에 대한 원유 수출 제한조치로 인해 증가세가 다소 줄어 2007년에 비해 37.3%가 늘어나 42억 2,756만 달러에 그쳤다.

2009년에는 2008년 H사가 수주한 이동식 발전설비 반입과 함께 치안 개선에 따른 외부활동 증가로 승용차가 괄목할 정도로 늘어나 수출은 전년대비 113.0%가 증가한 7억 8,451만 달러를 기록한 반면,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9.8%가 감소한 38억 1,220만 달러를 기록했다.

2010년 수출은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의 꾸준한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53.1%가 증가한 12억 77만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국제유가의 회복으로 전년동기대비 16.2%가 증가한 44억 2,772만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의 이라크 수출은 인근 국인 UAE, 요르단, 시리아 등 3개국을 통한 우회수출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회수출이 차지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연도별 한국의 이라크 교역 실적

(단위: 미$백만,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108.9(59.8)	209.7(92.7)	368.3(75.5)	784.5(113.0)	1,200.8(53.1)
수입	905.7(34.1)	3,079.8(240.1)	4,227.6(37.3)	3,812.2(-9.8)	4,427.7(16.2)

자료: 무역통계(KOTIS)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승용차, 담배, 화물자동차, 무선전화기, 자동차부품, 폴리에스터직물 등이며, 수입품목은 원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양가죽이 일부 수입되고 있다.

주요 품목별 대 이라크 수입 동향

(단위: 미$천, %)

품목명	2008		2009		2010		2011(1-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율
총계	4,227,559	37.3	3,812,200	-9.8	4,427,719	16.2	1,401,028	51.3
원유	4,224,971	37.2	3,811,996	-9.8	4,405,997	15.6	1,401,026	51.3
양가죽	2,567	214.0	169	-93.4	757	346.6	-	-

자료: 무역통계(KOTIS)

주요 품목별 대 이라크 수출 동향

(단위: 미$천, %)

품목명	2008		2009		2010		2011(1-2)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계	368,310	75.5	784,507	113.0	1,200,771	53.1	178,125	10.1
승용차	121,669	198.2	220,899	81.6	500,854	126.7	120,206	245.9
연초류	104,908	117.9	71,318	-32.0	111,460	56.3	15,437	-1.1
화물자동차	61,948	65.0	77,825	25.6	200,886	158.1	15,374	-74.2
무선전화기	15,534	2,564.7	18,151	16.9	73,080	302.6	13,254	99.1
자동차부품	11,486	16.4	16,925	47.4	27,468	62.3	3,588	-26.6
폴리에스터직물	52	-70.7	903	1,631.2	4,260	372.0	1,017	81.9
철강관	0	-	7,593	-	10,169	33.9	980	-

자료: 무역통계(KOTIS)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규제제도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기 전까지 이라크의 모든 교역은 정부 승인사항이었으나 이라크 전쟁 직후 미국이 주도한 연합국 임시행정처(CPA)가 명령 12 호를 발표해 대부분의 수입 상품에 대해 수입관세 대신 재건세 5%를 부과했다.

2004 년 4 월 16 일부터는 아랍 걸프 산유국들의 관세율과 같은 수준인 5% 단일 관세를 적용해 시장 개방을 급속히 추진하고 있다.

이라크의 관세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는 재무부이고, 관세의 징수관리는 산하 관세청(General Commission of Custom Authority)이 맡고 있으며, 관세청장은 D.G(Director General) 급이다.

나. 비관세 장벽

네거티브 시스템을 사용하여 수입 금지품목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전면적인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당초 2011 년 초부터 모든 상품에 대해 수출입허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2011 년 초부터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나타난 대규모 시위사태가 이라크에도 확산되면서 이라크 정부는 이 같은 수출입허가제도의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전쟁 이후 이라크 정부는 비관세 수입규제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급증하는 중고차 수입에 대처하기 위해 2004 년 10 월 20 일 수입 중고차 연식을 2000 년 이후로 정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 2005.9 월에는 중고차 수입 급증에 따른 교통 체증,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2005 년 10 월 1 일부로 수입 중고차의 연식을 2004 년산 이후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내각 결의(resolution)를 통해 한시적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으나, 이후 동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시점 기준 생산된 지 2 년 이상의 차량이 현재까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다. 수입품 사전 품질 검사제도 시행

이라크 임시정부 각료회의는 2004 년 12 월 1 일 이라크 전쟁 이후 활동을 중지했던 '표준화 및 품질 검사 위원회(State Committee of Standardization and Quality Control)'의 기능을 빠른 시일 내 부활시켜 상품 수입에 앞서 반드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결정 했다. 그리하여 이후부터는 동 위원회가 발행한 승인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 위원회 위원은 이라크 산업광물부(Ministry of Industry & Minerals) 전문가를 비롯해 국영기업 사장, 주요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수입 상품이 국제 규격에 부합하는지, 인체에 해로운 제품은 아닌지, 불법 복제품은 아닌지 등을 심사하지만 구체적 실행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라. 수입금지 및 제한품목

이라크정부는 아래와 같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래 품목 이외에도 과일쥬스 등 일부 식품류에 대해 요르단 등 주로 인근국가에서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수입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허가를 받아야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수입금지품목 현황

품 목 명	비 고
Al – freon gases	Used in cooling devises
Halons	Used in extinguishing fires related to electronic equipments, computers, and devices
Organic melts	Used in electronic cleaning processes, in chemistry field, oil refinery, and in laboratories
Chloroform	used as organic melts and in laboratories
Promeed	Used in fields of sterilizing earth and agriculture and in fields of sterilizing and manufacturing dates

자료 : www.iraqitic.com

수입허가품목 현황

구 분	품 목 명
1	Food stuff of all types including : chicken and its parts, chicken industrialized, meat & its parts, meat industrialized, fish of all types, eggs for eating, hatching eggs, canned Meat & chicken in (cartoon), chicken embryos, flour, tomato paste, all types of dried fruits, vegetables of all types (tomato, cucumber, eggplant, etc) different types of pulses (beans, lentils …), honey of all types, spices of all types, starch, Noumi Basra, all types of nuts, all types of dairy (cheese, milk, etc), sesame, mushroom & truffles, curran, strategic crops (rice, wheat, barely), sugar

2	Agricultural materials including : Tobacco, white & yellow corn, all types of fodders, all types of fertilizers, all types of insecticides & agricultural medicines
3	Construction materials including : All types of Wood (play wood , jam ,etc)
4	Petroleum materials including: Gas, white oil, asphalt, liquid gas, benzene

자료 : www.iraqitic.com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중고차 수입제한조치

이라크 정부는 2005년 1월 1일부터 2000년도 이전에 생산된 중고 차량의 수입을 금지시킨바 있으며, 2005년 9월 1일부터는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중고차량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한시적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한 이후 동 조치를 매년 연장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시점 기준 생산된 지 2년 이상 지난 차량은 현재까지 수입이 금지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농업을 촉진하고 재건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2009년 9월 1일부로 중고차 수입규정을 일부 개정, 10년 이하의 버스(20인승 이상) 및 트럭(3톤 이상)과 15년 이하의 농업용 및 건설용 차량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차량 부품수입과 관련, 중고 부품수입을 금했던 종전 규정을 개정하여 역시 2009년 9월 1일부터는 수입을 전면 허용키로 했으나 차량을 절단하여 반입하는 것은 불허키로 했다.

이라크 정부는 저렴한 중고차가 자살폭탄테러에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 유류난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중고차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산 중고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한국산 중고차 수입업계에서는 수입규제 정책 완화를 이라크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동 조치의 해제가 짧은 시기에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2003년 전쟁 이후 중고차 수입이 자유화되자 한해 약 90만 대의 중고차를 수출한 적이 있었으나 중고차 수입제한조치로 인해 사실상 중고차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최근에는 연식이 2년 미만 된 차량에 한해서 연간 약 1000대 정도 수출하고 있다.

나. 기타

이라크 정부입찰 시 관행적으로 유럽, 미국, 일본산에 국한하고 한국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사례가 일부 있어 공공사업부 등 관련 부처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 중이다.

5. 관세제도

2003년 전쟁 이후 미 군정당국은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포고령 54호를 발표하여 2004년 4월 16일부터 재건세(Re-construction Levy)라는 명목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는 H.S. 세번 분류방식에 의거 C.I.F 이라크 도착 가격을 기준으로 5%의 재건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세율이 단순한 관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동 재건세 부과대상 수입품목 중에서 식료품, 의약품, 의류, 서적, 인도물품, 재건용 반입품(CPA, 연합군, 재건공사 계약업체, NGOs, 국제기구, 외교관 및 Coalition Government, Oil for Food 계약 이행 물품 등)의 경우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반면 담배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35%의 고율 수입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라크정부는 재정수입 확대 및 국내산업 보호 차원에서 수입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초 2011년 3월부터 수입관세를 15-30% 수준으로 인상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가 2011년 초부터 중동 및 북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발발한 대규모 시위사태가 이라크에서도 나타나자 이라크 정부는 이 같은 수입관세 인상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 수입관세 인상과 함께 실시 예정이었던 수출입허가제도도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이다.

6. 주요인증제도

이라크 내에는 인증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산 등 각지에서 생산된 불법 복제, 모조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하고 있으나 품질규제나 인증, 검사가 사실상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제품들이 중국산 짝퉁제품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7. 지적재산권

이라크는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가맹국으로 원칙적으로 지적소유권 침해 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2003년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선진국 수준의 지적소유권 보호법으로 개정되어 최소한 법적 장치 면에서는 여타 국가와 비교해 손색이 없다.

관련 법규로는 2004년 4월 29일 CPA 행정명령 29호로 공포된 지적재산권법이 있으나 이 법규의 효력과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치안질서도 확보하지 못한 현재의 이라크 상황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유효한 행정적 집행수단을 갖는다는 것은 요원한 상황으로 실제 지적재산권 보호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지켜줄 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는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모조 제품, 불법 복제 CD 등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심지어 담배류도 위조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한국-이라크 간에는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별도 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8. 통관/운송

가. 개관

이라크는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따라 상품의 통관과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내륙 운송의 경우 이라크의 불안한 치안 상황으로 추가의 보관 및 보안 경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이다.

국제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 바스라 공항, 아르빌 공항, 슐레이마니아 공항 등이 있으며, 가장 주요한 공항은 바그다드 공항이다. 모술, 키르쿠크에는 국내선 공항이 있다. 2008년 7월 20일에는 시아파 성지인 나자프에 국제공항을 개장했다.

국제 공항들은 계속된 전쟁과 UN 경제제재로 인해 노후화되었으며 2003년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정상 운영이 곤란해졌다. 바그다드 공항은 2004년 8월에 관리권한이 이라크에 이양됐으며, 이라크 국영항공사(Iraqi Airway)가 요르단, 시리아 등 인근 중동국가에 운항을 재개했다. 외국 항공사로는 Royal Jordanian Air와 터키 항공 운항에 이어 최근에는 Gulf Air 및 Etihad(아부다비 항공)가 운항을 시작했다.

국제 항구로는 남부의 바스라항과 움까스르항 2개가 있으며, 상업 화물은 주로 움까스르항을 통해 수입된다. 종전 이후 한국 부산항에서 이라크 움까스르항까지 선박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3,700달러 상당이며, 두바이항에서 움까스르항까지는 1,500달러 상당이다. 움까스르항에서 바그다드까지 육로 운송 요금은 1,000달러 상당이나 운송과정의 도난, 파손 등의 위험으로 보관 및 보안 경비는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나. 통관절차

이라크 세관의 통관서류 및 절차는 인근국가와 유사하다. 즉, 상업송장과 원산지 증명서, 포장 명세서를 필요로 하며 세관원이 육안으로 물건을 검사한 후에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에 통관 절차가 종료된다.

이라크 내 세관 가운데 우리나라 화물이 가장 많이 반입되는 카라마/트레빌 세관의 경우, 이라크 인근 토착주민들이 세관 보조원으로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에 의한 뇌물 수수, 테러 세력과의 연계 등 부정 행위로 세관 행정이 불투명하다. 중앙정부가 투명 세관 행정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행정력 미흡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다. 운송

이라크 수입상들의 수입 루트로 최근 들어 요르단의 아카바 항구가 선호되고 있다.

그동안 치안불안 등으로 이라크 남부 움까스르 항구가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항구시설 협소로 화물적체가 심각하고, 적체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은 물론 처리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세관원들의 부패가 날로 기승을 부림에 따라, 수입상들은 다소 운임이 비싸더라도 아카바 항구를 이용하고 있다. 아카바 항구 관리당국도 이용객 증가를 위해 이라크행 콘테이너에 대해서는 항구 이용료의 30%를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입항 및 통관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정부구매 물자는 여전히 움까스르를 통해 반입된다. 주요 정부 구매 물자로는 국민들에게 생필품으로 배급하고 있는 밀, 설탕, 쌀 등이 있다.

우리나라를 출발한 화물이 이라크로 반입되기 위해 활용되는 항구로는 요르단의 아카바항, 시리아의 타르투스항,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항을 거치는 이라크 움까스르항 등 3곳이 있으며, 그 동안 어느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는 통관시점 상황에 따라 달랐다.

2003년 전쟁 직후엔 아카바항을 이용하는 것이 운임 경쟁력이 있어 운송 지연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되었으나, 종파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요르단과 시리아를 통해 반입되는 화물이 테러분자들에게 강탈당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자 움까스르항을 이용하는 바이어들이 늘어났다. 이후 두바이 경유 운임이 하향 조정되면서 움카스르-바그다드 간 운송 기간이 짧고, 내륙 운송 시 국경 통과의 번거로움이 없는 두바이-움카스르 루트가 많이 이용되었다.

그러나 움까스르 항구의 접안 및 하역시설 부족으로 근래 화물 적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행료 요구 등의 부패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인해 장기간 통관이 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수입상들이 움까스르항을 기피하고 있다.

이라크 정부는 움까스르 항구의 개·보수 및 인근 화우(Faw) 지역에 신규 항구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의 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으며 당분간 아카바항 이용 선호도가 계속될 전망이다.

Ⅳ.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황

이라크는 자원 보유 대국이며 원유 매장량이 1,150억 배럴로 사우디(2,643억 배럴), 이란(1,375억 배럴)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천연가스도 서부를 중심으로 3.17조 큐빅 미터 규모가 매장된 천연가스 부국이기도 하다.

이라크 정부는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중동지역에서는 비교적 폭넓은 투자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외국인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종전 이후 미 군정 지배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외국인투자 제한 정책에서 투자유치 개방정책으로 전면 전환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내국인과 동등 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인의 단독 투자,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 등을 허용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사 설치, 과실송금, 기타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도 허용했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2006년 8월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자적인 투자법을 제정하여 개방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여건을 조성했으며, 이라크 중앙정부도 2006년 12월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라크는 1980~1988년(8년) 이란전, 쿠웨이트 전쟁(걸프전) 및 전쟁 이후 12년간의 유엔 경제 제재,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및 이후 저항세력의 테러 등으로 산업 시설이 크게 파괴되고 노후화되어 개발 수요가 매우 큰 편이다. 종전 이후 미국 주도로 재건사업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의 투자환경은 테러에 따른 치안불안으로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아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외국기업들은 대부분 원유 등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해서만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 분야는 이라크 정부에서 철저하게 통제하고, 모든 자원을 국유화하고 있어서 단순 서비스계약 이외에는 외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투자법 시행을 담보하는 하위 법령도 제정되지 않았고 투자 지원체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도적 기반이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종파간 분쟁, 테러 등 치안이 여전히 불안해 외국기업들의 투자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의 가장 큰 위험요인은 전후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에 의해 급격히 진행된 투자 개방조치에 대한 이라크 정부 내 상당수 인사들이 지니고 있는 반감이다. 이들은 석유자원에 대한 이권을 외국인에게 넘겨주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라크 정부 내 상반된 이해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정리될 지가 이라크 투자 환경의 성격을 규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라크 국회에서 석유법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도 이라크 투자환경의 주요 결정 요인이다. 특히 쿠르드 지방정부와 공동 석유개발 계약을 체결하려는 외국 석유기업에게는 이라크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이 투자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나. 환경 변화

1) 이라크 전쟁(2003년 3월) 이전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에서는 비(非) 아랍계 국민들의 경우 민간 투자를 일체 허용하지 않았고 이라크 헌법에도 외국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비 아랍계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정부와 계약을 맺은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라크 회사와 합작투자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출자는 할 수 없도록 규제해 외국인 투자를 엄격히 통제했다.

2) 2003년 5월 이후

이라크전 종전(2003년 5월 1일) 이후 미 군정 지배하에서 이라크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등 이전의 통제 일변도 정책에서 적극적인 유치 정책으로 전환했다.

2003년 9월 19일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행정명령 39호로 공표된 외국인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천연자원 채굴 및 1차 가공(primary extraction and initial processing)을 포함한 천연자원 분야, 부동산 매매 등을 제외한 모든 경제부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투자명령 하에서는 외국인이 이라크 투자자와의 공동출자는 물론 100% 단독 투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 설치, 과실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다만, 동 법은 금융 및 보험업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이들 업종은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해 조건부 투자 허용 대상이었다.

CPA로부터 행정을 이양 받은 이라크 정부의 투자법 제정과 관련, 2006년 8월 쿠르드 자치정부가 먼저 신 투자법안을 마련했으며 뒤를 이어 중앙정부도 2006년 12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했다.

이라크의 경제성장 잠재력, 소비증가율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수익률이 인근 중동국가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단기적으로는 정정 및 치안 불안이 개선되지 않아 외국인의 실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 투자관련 정부기관

중앙정부에서 무역부(Ministry of Trade)가 투자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투자법에 의거 수상 직속기관으로 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가 2007년 11월 설립되어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자프주, 바빌주, 바스라주, 살라아딘주 등 지방정부도 주 투자위원회를 설립해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의 투자기관은 아직 내부 조직이 정비되지 않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북부 쿠르드 지방정부에는 2006년 8월 제정된 자체 투자법에 의해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가 구성되어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라크 투자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라크 전체의 투자정책을 기획하고, 각종 투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중앙기관이다.

라.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이라크 중앙정부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진출을 지원하는 기관을 투자법에 규정했으나 실제 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기관의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쿠르드 지방정부에서는 쿠르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쿠르드 개발공사(Kurdistan Development Corporation Ltd., KDC) 등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2. 외국기업 투자동향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전에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2006년 12월 투자법 제정 등 본격적인 투자유치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다. 막대한 원유 매장량 등 잠재적인 투자유망국으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지만, 만성적인 치안 불안 등 투자자금 회수 위험이 높아서 실제로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외국인투자규모는 1-5억 달러 수준이었으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에서 허가해준 외국인투자건수는 총 9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다.

이라크의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US$백만)

연 도	투자국가명	2004	2005
2008	미국	관광	0
2008	미국	관광	120
2008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무역	0
2009	요르단	관광	0
2009	요르단	주택건설	230
2010	아랍에미레이트연합	IT	65
2010	미국	제조업	240
2010	이라크, 터키 합작	주택건설	245
2010	요르단	주택건설	800

자료: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ational Investment Commission, 2010년 10월)
*NIC허가 기준

주요 투자국은 미국, 요르단, 터키, 아랍에미레이트연합 등이며, 이라크 정부에서 역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주택 건설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석유 부문에는 쿠르드 지역의 유전개발에 외국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석유공사를 비롯하여 노르웨이의 DNO사, 미국의 Hunt Oil사, 캐나다의 Heritage사, 프랑스의 Perenco사 등이 쿠르드 지방 정부와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했으며, DNO사는 발굴을 끝내고 석유를 생산하고 있다.

금융업 부문에는 영국의 Standard Chartered Bank, HSBC Holdings, 쿠웨이트의 National Bank of Kuwait, 요르단의 Arab Bank, 바레인의 Ahli United Bank, 레바논의 Byblos Bank 등이 영업 허가를 얻었으나 치안을 이유로 이 중에서 Byblos Bank만 쿠르드의 아르빌에 지점을 개설, 영업하고 있으며 나머지 은행들은 진출을 주저하고 있다. HSBC와 National Bank of Kuwait는 이라크의 민간은행인 Dares-Salaam Bank, Credit Bank of Iraq 등의 지분을 인수해 금융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미국의 S.J.C.O Co.가 쿠르드 지역 도훅의 시멘트 공장에 투자하고 있으며, Yuniss Shabo Nunu사가 도훅에 가스통 생산 공장에 투자하고 있다.

관광업 부문에는 레바논의 Malya Al Qabidha사가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에 호텔에 투자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는 UAE의 Bn Khalid Trading Group이 도훅에서 농산물 생산에 투자 진출하고 있다. 이외 무역업 부문에 미국의 American (azku) Co.사와 레바논의 Alwarida Co.사가 쿠르드의 아르빌에서 지사를 설립하여 영업 중이다.

3. 우리기업 투자동향

1. 개요

이라크 치안 악화와 테러, 우리 정부의 입국비자 불허조치로 2006년 말까지 이라크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전무했다. LG전자, 삼성전자 등 일부 대기업이 현지인 관리 체제를 유지해 왔지만, 한국 직원 파견은 없었다.

LG전자가 치안이 안정된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에 2006년 12월 최초로 정식 지사를 개설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이외 건설업체로 UI enc, KoriKurdi 등도 현지 건설공사, 부동산 개발 등을 위해 지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쿠르드 지방정부와 2007년말 유전개발 계약을 체결한 한국석유공사(상하수도, 도로 등 SOC 건설과 연계한 SOC 컨소시움)가 2008년 말에 지사를 설립하여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이라크의 대부분 지역은 테러, 납치 등으로 외국인의 신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한국기업의 진출이 부진한 상황이다.

2. 진출 현황

현지 치안 상황으로 인해 치안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쿠르드 지역에만 우리 기업5개 사가 진출해 있고, 바그다드 지역에는 2011년에 2개사가 사무실을 개설했다.

지역	연번	기업	업종	비고
아르빌 (4개사)	1	석유공사	○ 쿠르드지역 유전개발 및 SOC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공사	○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사업	
	3	ALCO	○ 건설업 및 무역업	KRG 등록법인
	4	태화산업개발	○ 아르빌 서민주택 건설사업	
슐래마니아 (1개사)	1	유아이이엔씨	○ 술레마니아 병원건립공사	
바그다드 (2개사)	1	STX중공업	○ 제철소 및 화학제품 공장 건설	
	2	한국가스공사	○ 가스전 탐사 서비스계약	

바그다드에 진출한 우리 기업은 현지 제철소 건설 등을 추진중인 국내 STX중공업이 2011년 1월에 바그다드에 최초로 사무실을 개설했으며, 1명의 한국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2011년 3월에 바그다드에 사무실을 열고, 3명의 주재원을 두고 있다.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개관

2003년 전쟁 이후 USAID의 Economic Recovery and Reform 계획에 의거, 신 경제정책이 추진되면서 투자 부문에도 전반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종전 이후 연합국 임시 행정처는 CPA 명령 39호(2003년 9월 19일)에 의거 종전의 투자관련법 조항을 무효화 시키고 새로운 투자 명령을 공포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동 명령에 의해 외국인 투자자도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됐으며, 외국인이 100% 투자할 수도 있게 되었고, 이라크 투자자와 공동 출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과실 송금이나 그밖에 영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되면서 인근 중동 국가보다 유리한 투자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2006년 5월 정식 출범한 현 정부는 2006년 말 미국의 재건자금 집행이 만료됨에 따라 재건 프로젝트와 신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과 인근 아랍국을 포함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여, 2006년 10월 국회를 통과시킨 뒤 2006년 12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했다.

이 투자법에는 외국인의 100% 지분 출자를 허용하고 과실 송금을 보장하는 등 인근 아랍 산유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에 비해 획기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말 기준, 투자법의 집행을 보장할 하위 법령의 제정, 투자 관련 기관의 설립 등 투자법의 집행과 지원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라크의 치안 불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외국인의 투자 여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나. 투자법 개요

이라크는 재건사업의 투자재원 조달 및 민간부문 외자 유치를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6년 12월 투자법을 제정했는데 다음은 투자법의 주요 내용이다.

1) 투자지원조직

○ National Authority of Investment: 수상 직속기관
-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5 년 임기, 내각 추천으로 국회 승인), 해당 분야 10 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 9 인으로 위원회 구성
- 기능: 국가 투자정책 기획, 투자규제 조치, 투자규제 감독, 연방정부의 전략적 투자 프로젝트 담당 등
- 지역과 주의 투자부서 대표자 임명

○ 지역 투자청(Territorial Authority): 지역 정부의 투자 승인과 투자 기획 담당
○ 주 투자청(Governorate Authority): 주정부 내 투자관련 부서

2) 목적

○ 이라크 발전에 기여하는 현대적 기술 이전과 투자 촉진
○ 투자 프로젝트 달성에 필요한 시설 공여로 외국 투자와 이라크 민간부문 지원, 국내외 시장에서 기업 경쟁력 촉진
○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인적 자원 개발 및 이라크인에게 고용기회 제공
○ 투자가의 권리와 재산 보호
○ 수출 증대 및 이라크 무역수지 활성화

3) 지원 수단

○ 특혜 조치와 경쟁력 증진 지원 조치
○ 관세와 각종 세제의 면제, 부가적 혜택 제공

4) 절차

○ 투자 신청서 접수 후 45 일 이내 허가 결정
○ 단, 투자 금액이 250 만불 초과할 경우 내각의 승인 필요
○ 구비 서류
- 소정 신청서(application form prepared by the Authority)
- 은행의 재정보증(Financial guaranty from an accredited bank)
- 투자가의 기 투자프로젝트(Projects undertaken by the investor in or outside Iraq)
- 투자프로젝트의 명세서와 경제 효과(Details of the project to invest in and its economic usefulness)
- 프로젝트 추진 일정(Schedule for the completion of the project)

5) 투자가에 대한 혜택과 권한

○ 국적에 관계없이 동등한 특혜 부여
○ 투자 목적의 외국인 토지 보유 허가
- 투자 프로젝트 존속 기간 동안(50 년 이내, 위원회 승인 하에 연장 가능) 토지 임차

○ 투자자의 부동산 소유 허용
- 그동안 투자 프로젝트의 존속기간에 한해 부동산을 최대 50 년 임차할 수 있었으나, 2009 년 6 월초 투자법을 개정, 외국인 투자자도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각료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동 수정안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부동산을 소유케 하되, 단 투자 해당분야는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국한한다는 것이며, 부동산을 소유한 투자자는 프로젝트가 종료돼야 타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함.

○ 투자 자본 반입과 과실 송금 허용(투자법과 이라크 중앙은행의 규정)
○ 권한: 이라크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채권 거래, 주식과 채권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토지 임차, 국내외 보험회사의 투자 프로젝트 보험, 국내외 은행에 이라크 디나르화 나 외국환 계좌 개설

○ 보장
- 투자 프로젝트에 적합한 이라크 근로자가 없을 경우, 외국인 근로자 채용 가능
- 투자가와 관련 근로자의 이라크 체재 및 출입국
- 법원 판결 없이 투자 프로젝트의 국유화, 몰수 금지

○ 투자법 상의 보장, 면제와 권리들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

6) 투자가의 의무

○ 투자 자산의 도입과 설치, 프로젝트의 사업 시기 등 신고
○ 이라크 회계 법인에 의해 감사 받는 상설 계좌 보유
○ 프로젝트의 경제적, 기술적 혜택 보고서, 위원회 요청 자료와 서류 제출
○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물자와 면세 물자에 대한 기록 유지
○ 환경 보호와 품질관리 시스템 준수
○ 임금, 면허, 근로시간,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이라크 법률 준수
○ 투자 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수행(6 개월 이상 지체 시 벌금이나 허가 취소)
○ 이라크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이라크 근로자 우선 채용 등

다. 투자 우대/제한 분야

투자 우대 분야는 특별히 규정되지 않았으나, 소매 분야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기간 동안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이라크 은행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과 채굴 분야는 현재 제정 중인 석유법으로 규율해 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며, 은행업과 보험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라. 투자 인센티브

1) 법인세 우대

외국 투자 기업에는 10년간 조세를 감면해 주며, 합작 법인일 경우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50% 초과 시 이라크 파트너의 지분이 늘어남에 따라 최대 15년까지 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준다. 그러나 프로젝트 자산을 이라크 법에 반해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세금(관세 포함)을 추징하고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수입 관세 면제

투자 프로젝트용 수입 자산이 투자 승인 후 3년 내에 수입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입관세를 면제해 주며, 투자 프로젝트의 확대를 위해 수입한 자산은 위원회에 신고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를 면제해 준다.

또한 투자 자산 가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 관세를 면제해 준다.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상 구분

o 이라크 기업법(Company Law) 과 연합국 임시행정처(CPA) 명령 64호에 의해 설립 가능한 회사 형태는 유한회사(주식회사 포함), 합자회사, 공사 합자회사 등이 있다.

1)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o 개인과 25인 이하의 그룹에 의해 설립 가능
o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
o 최소 자본금은 1백만 이라크 디나르

2) 합자회사(Joint Liability Company)

o 2인 이상 25인 이하의 사원으로 설립 가능
o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으로 구분

3) 공사 합자회사(Mixed Public and Private Sector Company)

o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각 1인 이상의 사원들로 설립
o 공공부문의 지분이 최소한 25% 이상이어야 함.

나. 투자형태별

o 이라크는 현지법인과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법인이나 연락사무소를 이라크 내에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무역부 산하 외국기업 등록처(Registrar of Company) 에 등록해야 함.

o 외국기업의 등록방법 및 절차도 형태별로 상이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됨.

o 다만 이라크 내에서 소매유통업을 하는 외국기업은 일정 금액의 예치금을 지정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일정 기간 경과 후 인출이 가능함.

o 외국기업이 이라크 내에 투자를 원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류를 국가투자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 통보함.

o 그러나 대규모 투자 없이 이라크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할 경우에는 외국기업 등록처에 등록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

다. 투자주체

o 외국인 투자 가능 비율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투자위원회에서 신청서류를 접수하여 건 별로 심의하여

인가를 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종료 이후에도 치안상황의 개선 정도가 미흡하고, 국제적인 신용도가 낮아서 투자 이후 투자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강함.

- 따라서 이라크 정부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이 단독 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100% 투자가 아니더라도 외국기업들이 최대한 많은 비중을 투자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투자비율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규제가 없는 상황임.

라. 외국인 진출 선호 형태

-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후 외국인 투자 제한 정책에서 벗어나 폭넓은 개방정책을 추진하여 대부분의 분야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단독투자 또는 합작투자가 모두 가능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과실 송금, 기타 영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음.

- 다수의 외국기업들도 전쟁 종료 이후 이라크가 엄청난 전후 복구사업 수요, 세계 3위의 원유매장량 보유에 따른 풍부한 자금 등으로 매우 유망한 투자시장으로 높은 관심을 가져왔음.

- 그러나 아직까지도 치안상황이 크게 호전되지 않고, 정치적인 안정도 지연되면서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처라는 인식을 주지 못해왔음. 특히 이라크의 투자유치정책이 대부분의 자금을 외국기업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이지만, 향후 투자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이라크의 낮은 신용도로 인한 금융기관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사례는 거의 없는 상황임.

- 외국기업들은 직접투자보다는 이라크 내의 원유 및 가스전 개발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크고, 이러한 자원 개발 분야에 대한 이라크 정부의 입찰에는 유수의 외국기업들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자원 개발 분야는 자체적으로 수입원이 발굴되는 분야로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수익성이 확실하고, 이라크 내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

- 반면 이라크 기업들에 대한 보호 및 기타 사유 등으로 필요 시 외국기업의 단독 사업 추진을 규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호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외국기업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단독 사업 추진을 금지시키고, 이라크 기업들과의 합작 또는 협력을 통해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음.

- 그러나 기존에 이미 진출한 미국 또는 영국계 경호업체들은 새로운 제도와 상관 없이 단독 사업 추진을 할 수 있으며, 한국기업이 새로 진출을 원할 경우에는 이라크 기업들과의 합작 또는 협력이 불가피함.

마.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 이라크 내에 법인(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포함)을 설립하려는 외국기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함.

- 외국인은 이라크 무역부 장관령 149호"외국기업의 지사 또는 무역사무소 등록(Registration of Branches or Trade Representation Offices by Foreign Companies)" 에

의거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
o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회사등록처(Registrar of Company) 에 제출

o 회사등록처의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신청서 검토
- 신청서에 오류 발견 시 신청업체에게 반송
- 신청서에 오류가 없을 시 신청서 접수 사실을 신청업체에게 통보
- 접수와 동시에 등록 데이터 입력
- 임시 고유등록번호 배부

o 회사등록처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보
- 승인 기준은 무역부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
- 특별한 사유 없이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는 없음.

o 승인 직후 회사등록처는 신청업체에게 사업자등록허가서 발급

o 승인된 신청업체는 허가서 발급일로부터 정식 사업자 등록번호 취득

o 회사등록처는 업체 등록내역을 공고하고 현지 일간지에 게재

o 회사등록처는 등록허가를 받은 업체 내역을 노동부, 예산부 등 관련 부처에 통보

o 회사 등록처는 등록 사업자 기본정보를 무역부 사업자등록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

o 사업자 등록 수수료 : 건 당 20만 이라크 디나르(약 US$ 170) 소요
- 신청서 제출 시 등록비의 50% 납부
- 사업자 등록 및 임시번호 부여시 나머지 50% 납부
- 미 승인 신청업체는 기납부액 50% 환불 불가

o 사업자 등록 미 승인 시 회사등록처는 미 승인 사유를 신청업체에게 신속히 통보

o 신청업체는 미 승인 사유에 대해 30일 내에 이라크 무역부에 이의 제기 가능

o 무역부는 이의 제기 접수 후 30일 내 미 승인 사유 조사
- 무역부 조사에서도 승인 거부 시 신청업체는 30일 내 이라크 법원에 제소 가능

o 등록업체 세부정보 변경 시 변경내용 통보
- 해당년도 말 이전에 통보 의무
- 사무소 또는 행정대리인 주소 변경 시 7일 이내 회사 등록처에 신고
-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 책임은 해당업체에 있음.

바. 회사 등록 필요 서류

o 소정의 신청서
o 본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회사 정관 사본 1부.
o 하기 요건을 갖춘 협조공문
- 이라크 지사 책임자, 법률대리인, 사업자 등록 책임자 인적 사항(3인 모두 이라크에 주소지 보유 필요)
- 본사의 책임자 서명

o 최근 년도 결산자료

o 등록업종이 소매유통업일 경우 US$ 10만 은행 예치 및 증빙자료 제출(등록 승인 후 실제 영업개시 전까지 사후 제출 가능)

o 본사와 이라크 지사 관련 항목에 기재된 인적 사항에 대한 여권(외국인) 또는 신분증(현지인) 사본

o 업종
- 본사와 신분증에 명시된 인적 사항은 제출양식 기재내용과 동일 인물이어야 하며 향후 등록과 관련해 회사 등록처에서 신분증 원본 제출 요구 시 이행 의무

o 법인명
- 상호, 업종, 이라크 주재 사무소 주소
- 아래 3인의 이라크 내 연락 가능한 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 이라크 지사장, 법률대리인, 사업자 등록 책임자

사. 추천 법무법인

o Alsaif Advocates & Legal Consultants
- Corporate & Commercial (Company Registration & Foundation).
- Arbitration.
- Agreement Drafting₩Revising.
- Property & Real Estate.
- Legal Consultation.
- Banking & Finance.
- Construction.
- Taxation &Custom Duties.
- Labor & Employment.
- Intellectual Property.
- Maritime & Aviation.
- Trade & Insurance
- Contact person: Mr. Saif Aldeen Tarik Mouhsin / Lawyer
- Mobile: 00964 7901793586
- info@saiflaw.com
- saif@saiflaw.com
- www.saiflaw.com
- Address: Iraq, Baghdad, Karrada

o Iraq Global Consulting & Services
- A specialized private company; established to provide high quality consulting services & training for foreign companies.
- Contact person: Eng. Kadhum A. Jabbar
- Mobile: 00964 7800008475, 00964 7700033587
- info@Iraqglobalconsulting.com
- www.iraqglobalconsulting.com
- Address: Republic of Iraq, Dhi Qar – Nasiryah P.O. Box: 360

o AL-Azzawi Group
- Practice Areas: Investment in Iraq, legal counsel, intellectual property, Register Company, Trade law, civil litigation, legal contracts, International banking and business law.
- Contact person: Mr. Hussein Ahmed AL Azzawi / Lawyer
- Tel: 00964 1 7760165
- Mobile: 07901345810
- Fax: 00964 1 7761293
- info@azzawilaw.com
- www.azzawilaw.com
- Address: IRAQ – BAGHDAD ABU-NUAIS ST- NEAR BABIL HOTEL – St 67 – NO 4

6. 투자입지여건

가. 개관

이라크는 정정 및 치안 불안 등으로 투자 리스크가 아직도 높기 때문에 투자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나, 북부 쿠르드 지역이 비교적 안전하고 이동 시 치안상 문제가 적은 지역이며 최근 건설 붐이 일고 있어 상하수도, 주택건설,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추진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치하에서는 자유무역지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1980~1988년 동안 벌어진 이란-이라크 전쟁, 1991년 제1차 걸프 전쟁, 이후 12년간의 UN 경제제재 등으로 인해 경제가 몹시 피폐해졌으나 당시 정권이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제도를 고수하면서 대외 개방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라크 제조업의 대부분을 200여 국영기업이 담당하였고 민간부문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굳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또한 GDP의 65%, 외환 수입의 90%를 원유가 차지하는 기형적 구조로 인해 경쟁력을 보유한 수출상품도 없어 자유 무역지대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 이라크는 전면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수입 자유화 조치에 따라 자유무역지대의 추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불가리아의 Vassilevi Bros사는 2004년 3월 14일 이라크 과도 통치위원회(IGC) 및 연합국 임시행정처(CPA)와 요르단 국경지대인 트레빌(Trebil)에 자유무역지대를 추가 건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나.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대

1) 산업단지

이라크 정부의 산업단지 육성정책은 명확하지 않으며, 치안여건 불안으로 신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없다. 단, 기존 조성된 산업단지 6개 처에 대한 정상화 노력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부 바스라 인근 움까스르 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하여 제조 및 물류기지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이라크 국경 샤트알아랍 지역에 신도시 및 산업물류단지를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북부 쿠르드 지역에는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없으나, 쿠르드 지방정부에서 투자법을 제정해 쿠르드 지역의 아르빌 내에 드림시티를 건설하고 건설분야 활성화에 치중하고 있다.

이라크 주요 산업공단 현황

연번	공단 지역	위 치	주요 입주업종 내역	비 고
1	Bub Al-sham	바그다드 북동방향 25 Km	ㅇ 건축자재 ㅇ Mechanical ㅇ Feeding, adhesives ㅇ Plastics products	중규모
2	A'wyreej	바그다드 남동방향 35 Km	ㅇ Textile ㅇ Plastic & fiber ㅇ glass products ㅇ Gas separation ㅇ plant(industrial and healthy) ㅇ 자동차부품	국영 공장, 창고 및 워크샵 위주 중규모
3	Al-Nahrawn	바그다드 남서방향 55 Km	ㅇ Bricks factory ㅇ Light industries	중규모
4	Gurref Al-Nadaf	바그다드 북쪽 30 Km	ㅇ Small Agriculturalequipment ㅇ Food processing and beverages ㅇ others	소규모
5	Jamilla	바그다드 동쪽 8 Km	ㅇ Foodstuff & beverages ㅇ Textile ㅇ Steel products ㅇ Construction materials ㅇ Chemical products	중규모
6	Bab Al Sheeckh	바그다드에서 1 Km	ㅇ Hand crafts and Small work ㅇ shops ㅇ Supplementary car industries ㅇ Plastic products	공해문제로 환경부에서 2003년 초 입주업체들에게 철거 명령을 내린 후 전쟁으로 가동 중단

2) 자유무역지대

이라크는 수출자유지역청법(Free Zone Authority Law)을 1998년에 제정하여 조세법상 특혜를 부여한 자유무역지역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외국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수익과 자본 이득에 대한 모든 조세와 수수료를 면제하고, 지역 내 비

이라크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100% 면제하며, 이라크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50%를 면제하고 있다.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비 내수용 수출입품에 대해 관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외국기업이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면 '이스라엘 보이코트 (Arab Boycott of Israel)'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Khor Al-Zubair Free Zone
- 이라크 남부 최대 도시인 바스라 인근 40㎞에 위치
- 1,000 ㎡ 규모로 Al-Zubair항의 항만시설 이용, 걸프만의 물류 중심지

○ Ninev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지역 모술 북쪽 20㎞에 위치
- 400 ㎡ 규모로 터키, 시리아, 요르단과 남부의 바스라항을 도로와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

○ Al-Qa'im Free Zone
- 이라크 서북부 시리아와 국경지역 도시로 수도인 바그다드로부터 400㎞ 북서쪽에 위치
- 70 ㎡ 규모

○ Sulaymaniyah Free Zone
-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 소재

이 외에도 바그다드로부터 약 500km, 요르단 수도 암만으로부터 약 400km 떨어진 국경지방인 서부 트레빌(Trebil)에서 이라크 수입상품의 약 40%가 세관을 통과할 정도로 물류 흐름이 많은 곳으로 Vassilevi Bros사는 약 45,000m 의 면적에 2004년 6월부터 10년 간 자유 무역지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7. 노무관리

가. 개관

전쟁 이후 약 30~40%에 달하는 실업률로 취업기회가 줄어들어 미숙련 노동력은 풍부한 실정이다. 이렇다 할 교육이나 경험이 없는 단순 노동력의 월 평균 임금은 미화 400~500달러 수준이다.

사무직의 경우 능력에 따라 미화 월 700~2,000달러를, 비서직의 경우 미화 800달러 상당을 지불해야 채용할 수 있다.

이라크 근로자는 다른 중동국가 근로자에 비해 직무에 대한 충성도와 열의는 높은 편이며 업무를 파악하는 속도 또한 빠른 양질의 노동자이다.

전후 이라크인들의 외국인 회사 근무 기피 현상이 생겨났는데, 이는 저항세력이 전후 복구에 참가하는 기업, 특히 외국계 회사에 고용되어 있거나, 외국계 회사와 합작으로 전후 복구에 참가하는 기업 직원을 납치, 테러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실업률은 높지만 외국인 회사에 근무하려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라크의 국내 치안이 악화됨에 따라 숙련 노동력의 해외 이탈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의사, 교수 등 고학력 인력, 특히 외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인력은 납치 및 테러 등의 위험으로 해외 이탈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인 바그다드의 주요 병원은 전문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이 갈수록 낮아져 보건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중요한 수술일 경우에는 아르빌 등 비교적 치안이 안정된 곳이나 요르단 등 인근국가로 가서 치료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퇴직금

퇴직금 관련 법적 규정은 없다.

다. 노동 조건

1) 노동 시간

이라크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며, 초과근무는 1일 최대 4시간 이내이다.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2) 휴가

유급 휴가는 최대 연간 30일이나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 휴가로 유급 1년 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3) 기타

근로자는 상여금으로 회사에 따라 1만~1만5,000 디나르를 매년 지급받으며, 단결권이 인정되어 주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다.

라. 사회보장제도

2003년 전쟁 이후 사회보험법이 제정되어 종업원 당 급여의 17%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보험료 중 5%는 종업원이 부담하고, 나머지 12%는 산업 연합(Industry Union)에서 부담한다.

종업원은 퇴직 시 근무연한에 비례하여 정해진 금액을 지급 받으며, 최저 지급액은 12만 5,000 디나르 이다.

8. 조세제도

전후 연합국 임시행정처 치하에서 CPA 명령 49호에 의거 2004년 2월 19일자로 종전 소득세 법(Law No.57, 2001년)이 개정됐다.

전쟁 직후 행정력 붕괴로 인해 한시적 조치로 2003년 4월 16일 ~ 2004년 3월 13일까지 소득세 징수를 면제했으나 행정력이 복원되면서 2005년 4월부터는 공무원 및 국영기업

임직원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1. 개인 소득세

이라크 정부는 개인별로 해당 기초 공제액을 공제한 소득액에 3~15%의 차등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 기초 공제액

개정 전/후 기초 공제액 비교

구 분	Law No.57(2001)하 공제액(I.D.)	CPA Order 49(2004)하 공제액(I.D.)
본인	600,000	2,500,000
배우자	400,000	2,000,000
자녀	100,000	200,000
미망인/이혼자	1,000,000	3,200,000
고령자	150,000	300,000

나. 거주자 및 비거주자 소득세율

개정 전/후 소득세율 비교

종전		2004년
거주인	비거주인	
10% to 250,000 I.D.	15% 250,000.000 I.D.	3% to 250,000 I.D.
20% over amount of 250,000 I.D. to 1,000,000 I.D.	25% over amount of 250,000 I.D. to 1,000,000 I.D.	5% For over amount of 250,000 to 500,000 I.D.
30% over amount of 1,000,000 I.D. to 2,000,000 I.D.	35% over amount of 1,000,000 I.D. to 2,000,000 I.D.	10% For over amount of 500,000 I.D. to 1,000,000 I.D.
40% over 2,000,000 I.D.	45% over 2,000,000. I.D.	15% For over amount of 1,000,000 I.D.

2. 법인 소득세

이라크는 회사 유형에 따라 혹은 내·외국인 법인이냐에 따라 법인 소득세율을 차등 적용한다.

- ○ 외국회사의 이라크 현지 법인: 15%
- ○ 이라크 유한회사: 25%
- ○ 이라크 주식회사: 15~35%
  - 영업 이익 I. D. 1,500,000 까지는 15% 적용
  - 영업 이익 I. D. 1,500,000 에서 I.D. 3,000,000 까지는 25% 적용
  - 영업 이익 I. D. 3,000,000 이상일 경우 35% 적용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이라크는 달러 연동 변동 환율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무역부문 전면 자유화를 도입하면서 외환시장에 대한 규제도 철폐하여 변동 환율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2003년 8월 말 이라크 중앙은행이 업무를 재개하여, 시중은행이 참가하는 경매를 통해 대미 환율을 정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물가 억제책의 일환으로 이라크 디나르화의 평가 절상을 지속 추진해옴에 따라 2006년 11월 이후 달러화는 약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달러화 등 외환거래는 완전히 자유화되어 이라크 내 외환 소지 및 거래, 송금, 입금이 자유화되어 있다. 달러화 환전도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할 수 있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시장 특성

가. 소득 수준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시장

1 인당 국민소득 3,000 달러 대의 저소득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1970 년대 말까지 이라크가 중동의 산유 부국이었기 때문에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고급 제품에 대한 향수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1 인당 소득 수준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지난 20 년간, 정부의 수입 통제로 인해 외부와 단절되어 과거 유명 브랜드에 대한 향수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취향을 겨냥, 유명 브랜드 재고품이나 모조품도 대거 유통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행정력이 미흡하여 모조품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국과의 전쟁 이후 소비자들의 급격한 구매력 감소로 저가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나 품질 수준을 도외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라크 소비자들은 품질에 대해 매우 까다로운 생각을 지니고 있으며, 대체로 품질의 차이에 따른 가격차를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그 결과 저가 중국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만족 지수는 그리 높지 않으며, 한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은 편이다.

생활용품의 경우 대체로 개당 100 달러 미만의 제품은 가격을 더 따지나 100 달러 이상인 제품은 품질이 더 중요한 구매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전 제품은 500 달러를 기준으로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제품은 5,000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과 품질의 선호도가 바뀐다.

이상과 같이 이라크인의 일반적인 소비성향은 '유명 브랜드 저가 모델' 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가전 제품은 대체로 '브랜드는 고급' 이지만 제품은 선진국에서 한물간 구형 모델이거나 단가 절감을 위해 제 3 국에서 조립한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나. 단기 현금화가 가능한 제품 선호

전후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는 있으나 치안 및 정정 불안으로, 대형 바이어들은 가급적 재고 부담이 많거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분야를 꺼리고 가능하면 회전이 빠르고 단기 현금화가 가능한 분야에 치중하는 편이다. 즉, 중고차, 가전 제품, 식품 등 현금 장사에 치중하는 편이다.

다. 딜러쉽 체재 정착이 아직 미흡

요즘 이라크로 수입되는 상품들은 독점 딜러만이 아니라 자금 능력, 판로를 갖추고 있는 수입상이라면 누구나 수입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다. 후세인 정권 붕괴 후 수입 면허가 불필요한데다 제조업체나 수출업체는 아직 이라크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딜러쉽 체제를 구축하기보다는 단기적 시장 진출 전략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바이어들 모두에게 가리지 않고 물건을 공급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라크 내 치안이 확립되고 상거래 질서가 안정되면 딜러쉽 체제가 정착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특히 A/S 가 필요한 품목은 조만간 딜러쉽 지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

라. 직수입 보다는 두바이나 암만을 통한 재수입이 주류

2003 년 전쟁 직후에는 원산지 수출상보다는 딜리버리 기간이 짧고 대금 수수가 용이한 두바이, 요르단, 쿠웨이트 등 인근지 중개상을 통한 수입 비중이 절대적이었으나 그 후 수입업자들 간에 점차 경쟁이 가열되면서 중개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직수입을 선호하는 수입상들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민족 감정까지 겹쳐서 요르단, 쿠웨이트 중개상을 통한 수입을 매우 꺼리는 분위기가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수입상들의 직수입 선호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부족하고 재고를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액주문을 외상으로 받으면서도 운송 기간도 비교적 짧은 두바이, 요르단, 터키 및 시리아 상인을 통한 중개무역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마. 쿠르드 자치지역은 이라크내 별개의 상권

인구 460 만 명의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은 이라크 영토이면서도 여타 이라크 영토와는 판이한 시장이다. 자치 지역의 주요도시인 아르빌, 도훅, 술레이마니아 등지에서는 아랍어로 된 도로표지판이나 간판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며 쿠르드족 고유의 쿠르드어를 사용하고 있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유사 이래 한 번도 독립 통합국가를 창설해 본 적이 없는 쿠르드족은 이라크 영토 이외에도 터키, 시리아, 이란 등 4 개국에 걸쳐서 약 2,500 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 1 차 걸프전 이후 UN 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계기로 쿠르드 자치지역은 바그다드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준 자치적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런 쿠르드 시장을 놓고 터키계와 이라크계가 경쟁관계에 있으며, 이라크 쿠르드 상인을 통하면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뿐 아니라 사실상 터키, 시리아, 이란 일부 지역에까지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라크 내 딜러쉽 체제를 구축할 때 이라크의 아랍계 지역과 쿠르드 지역을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한 시장 개척 방안 중의 하나이다. 한편 쿠르드 지역으로 공급되는 제품은 대체로 시리아 타르투스 항구나 터키 메르신 항구를 이용하는 편이 운임과 운송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바. 이라크 프로젝트 추진 시 보안비용 포함 필수

수출을 FOB 조건으로 체결할 경우 바이어 책임하에 운송이 이루어지나 이라크 항구로의 직접 운송 및 내륙 운송을 포함하는 조건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이라크 내 보안조치에 따른 추가 부대비용이 원가의 최소 30%에서 최대 300%까지 견적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보안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

사. 수출유망 상품

우리나라의 대 이라크 시장 수출 유망품목은 2003 년 전쟁 이후 급증한 중고차 수출을 바탕으로 2005 년 중고차 연식 제한으로 중고차 수출이 위축되면서 신차 수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승용차와 화물 자동차이다. 또한, 기 수입된 중고차의 부품 교체 수요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수출도 유망하다.
최근 이라크 내 무선 인터넷망 확대로 개인 컴퓨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조립 PC 시장이 완제품 PC 시장으로 전환될 경우 개인 컴퓨터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자리잡을 전망 이다.

발전기는 전쟁 이후 이라크의 전력 사정이 전쟁 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어 개별 발전기 수요가 상당한 수준이다. 이라크 소비자의 구매력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이 우선시되는 시장이었으나, 내구재로서 품질 경쟁력도 중요해지면서 한국산 발전기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TV, 에어컨, 냉장고 등의 수입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라크 소비자들의 호평 속에 한국 산 가전 제품의 수출이 늘고 있으며,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유망 수출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 동안 쿠르드 지역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서는 치안 불안으로 재건 프로젝트의 추진이 지연됐으나 치안이 회복되고 재건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경우 건설 중장비 시장이 급속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한국산 건설 중장비도 수출이 유망하다.

무선 전화기도 수출 유망 품목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라크 통신망이 무선 통신망 중심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치안 불안으로 소비자들의 무선 전화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한국산 무선전화기는 그동안 제품군의 다양성 미흡, 높은 가격대로 시장진출이 부진했지만,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모델의 출시 및 이라크 시장의 고가제품 선호 추세 등으로 수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타 한국산 담배도 높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선박류도 유망 수출상품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 바그다드 지역 주요 상권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 지역의 주요 상권은 다음과 같다.

○ 아라사트
- 서울로 비교하자면 청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급 상점들이 형성되어 있음.

- 아라사트와 사둔거리가 만나는 도로에는 LG, 삼성, 파나소닉 등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이 늘어서 있음.

○ 카라다 아웃
- 전자 제품 위주의 상가가 횡으로 길게 뻗어 있음. TV, 냉장고, 에어컨, 위성 수신기기 등 60% 이상의 간판이 국내 기업들로 이루어져 있음.
- 바그다드에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와르다 슈퍼마켓에서 돼지고기, 각종 생선 구입 가능

○ 카라다 인
- 대단히 번화한 거리 중의 하나로 서울에 비유하면 명동에 해당함. 의류판매점, 카페, 음식점, 노점상 등이 고루 분포

○ 샤라 사둔(사둔 스트리트)
- 팔레스틴 호텔과 쉐라톤 호텔을 지나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안경점, 가방점 등 여러 상점들이 늘어서 있음.
- 샤라 사둔의 북쪽 끝에는 서울의 청계천 상가처럼 상권이 형성되어 있음.
- 각종 소규모 전자제품 및 위성기기, 컴퓨터 업체를 찾아볼 수 있음.

○ 샤라 쇼르자 및 라시드
- 이곳에는 직물 가게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으며, 각종 잡제품을 파는 전통시장이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함. 일반 통행로여서 이곳을 방문할 때에는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발품을 파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2005 년 초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복구하는 데 다소 시일 소요 전망

○ 세이크 오말
- 이곳에서는 중장비 및 부품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건축용 자재 상점도 많은 편임.
- 특히 자동차 부품 중 일제차와 미제차, 독일제차 부품 상점이 많음.

○ 무잠마 알무신
- 자동차 타이어, 배터리 상점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일부 상점은 부품도 취급하고 있음. 카센터도 많음.

○ 시바하
- 자동차 부품 상점이 많이 형성 되어 있음.

○ 나흐다, 베이다
- 중고차 시장

○ 만수르
- 티그리스 강 건너 지역으로 고급 상점들과 TV, 냉장고, 에어컨, 위성 기기 등을 취급하는 전자 제품 상점 등이 주로 형성되어 있음.

2. 물가정보

(1 US$ = 1,180 ID / 2011년 4월 기준)

구분	항목	가격(ID)
식품류	쌀 1kg	3,500
	계란 12개	3,000
	쇠고기 등심 1kg	16,000
	돼지고기 등심 1kg	n/a
	우유 500ml (skimmed)	1,500
	식용류 1L	4,500
	생수 1L	1,000
	맥주 (하이네켄 355ml, 6팩)	15,000
	담배 1갑 (말보로 라이트)	3,00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n/a
	김치찌개 1인분	n/a
의료비	의료보험료 (4인가족, 치과제외 Full Cover, 1년)	n/a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개인병원)	25,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ㅇ, 몸살감기 내과조친)	n/a
차량관련	중형승용차(2000cc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현대 소나타)	25,000,000
	무연휘발유 1L	1,000
	자동차 등록비	5,000
	자동차보험료 의무(2000cc신차,운전경력10년,대인/대물커버, 1년)	n/a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3,000
	지하철 기본요금 (1구간)	n/a
	시내버스(mini bus) 기본요금	1,000
	택시 기본요금	탑승전 흥정
통신	시내전화(휴대전화) 요금 (3분)	425
	국제전화(휴대전화) 요금 (3분, 한국으로 걸 때)	3,000
	시내전화 요금 (월표준 1분)	n/a
	인터넷 월사용료 (1mb, IP 1개 기준)	118,000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50s/m, semi-furnished, 시내, 중상급)	4,500,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상급)	n/a
	외국인학교 중등 1년 수업료 (중상급)	n/a
	외국인학교 고등 1년 수업료 (중상급)	n/a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400,000
	중급호텔(3성급) 1박 정상요금 (싱글)	250,000
임금/노무	대졸 초임 (중상급 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1,000,000
	생산직 초임 (학력무관 월급여 초임)	600,000
	매니저급 급여 (인사담당 5년 경력 과장급 월급여)	2,00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14일
	연간 국경일수	15일
	주5일 근무 여부	5일근무
기타	드라이크리닝 (정장 1벌 기준)	7,000

3. 바이어 발굴

1.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이라크 유력 수입상들은 테러, 납치를 피해 상당수가 두바이와 암만으로 피신해 있으며 이라크 내에는 최소 직원만 유지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비즈니스맨 연합 등 유관단체가 있기는 하나 바이어 리스트를 찾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현지에서 발간되는 디렉터리, 옐로 페이지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며, Compass 등 자료를 토대로 바이어의 소재 여부를 일일이 유선으로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3년 전쟁 이후 신변 불안으로 이라크의 유력 바이어들이 인근국가로 피신해 있으므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국가 시장을 통해 이라크 시장을 우회 개척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다. 특히 치안불안으로 현재 우리 기업인들의 이라크 입국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바이, 요르단, 쿠웨이트 등지를 거점으로 삼고 있는 이라크 유력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이라크 시장 진출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인근국가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활용해 이라크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요르단에서 매년 개최되는 이라크 재건박람회(REBUILD IRAQ) 등 이라크 재건을 위한 여러 전시회에 참가할 경우 이라크 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2006년부터 치안이 안정된 쿠르드 지역에서는 Sulaimany International EXPO(매년 9월) 등 국제 전시회를 개최해 외국기업의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라크인들은 모두 구매력이 약하다'라는 단일 잣대로 요르단 등 인근지 조립품이나 중저가 형 모델 위주로 공급하기보다는 '한국제품'을 '일본제품'의 대체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고소득 층을 겨냥한 'Made in Korea'의 프리미엄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전쟁 직후 세관 행정이 미비하고 혼란한 틈을 타 인근국가 중개무역 상인들이 주도권을 장악했었으나 최근 직교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이라크 내에서 거세게 일고 있다. 수입 경쟁이 치열하면 할수록 직교역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이라크는 인터넷 보급율이 중동지역에서도 가장 뒤떨어진 상태로 중소규모 바이어들은 일상적으로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신뢰할 만한 소스라고 볼 수 없지만 이라크의 업체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는 다음과 같다.

- Baghdad Bazaar: www.baghdadbazaar.com
- Iraqi Directory: www.iraqdirectory.com
- Iraqi Ministry of Trade Business Center: www.motiraq.org/home.aspx
- 유료 사이트인 www.noozz.com는 뉴스제공 사이트이나 일부 활용이 가능함.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시 금기사항

이라크는 2003년 미국과 전쟁 후 이슬람 종파 간 갈등이 새롭게 증폭되었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소속 이슬람 종파(수니파, 시아파)를 묻는 것은 금기사항 중 하나이다.

또한 이름만으로도 소속 종파를 알 수 있어, 납치가 기승을 부리고 테러 위험이 높아지면서 경찰이나 타인에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꺼리며, 모르는 사람과는 명함도 교환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인과 상담할 때는 쿠르드 독립과 관련된 이야기는 자제해야 한다. 쿠르드족은 전체 인구의 약 17%인 400여 만 명이 이라크에 살고 있으며 사담 후세인 정권까지 쿠르드 독립 정부를 갖지 못했으나, 전쟁 이후에는 쿠르드 지역(수도: 아르빌)에 자치정부에 준하는 정부조직(대통령, 총리 및 정부부처)을 구성했다. 하지만 터키, 이란 등 주변국들은 이라크 내 쿠르드족이 독립할 경우 자국 내 쿠르드족 독립운동으로 확산되어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쿠르드 지방정부의 독립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쿠르드족 독립은 가장 예민한 사항 중 하나로 그와 관련한 언급은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바이어와 친한 사이가 아니면 사담 후세인 등 종전 후의 민감한 정치적 화제는 말하지 않는 편이 좋다. 특히 상대방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잘 알지 못할 경우 사담 후세인에 대한 선호도 질문은 매우 예민한 사항이므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이슬람 문화권에 공통된 사항으로 처음 만나는 여성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통상 개방적이지 않은 히잡을 쓰고 있는 무슬림 여성에게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신을 소개해야 하며, 악수를 하거나 신체적 접촉은 금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바이어와 상담 시 웃는 얼굴로 친근감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아주 간단한 에티켓으로 보이나 감정적이고 단순한 대륙 기질의 이라크인들은 첫인상을 중요시하며, 신경질적이거나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을 싫어하고, 관대하고 편한 느낌을 주는 사람을 선호하므로 항상 웃는 얼굴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할 때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유리한 상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상대방과 대화 시 호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상하로 약간 흔들어 긍정의 의사를 적절히 표시함이 좋다.

이라크에서도 다른 이슬람 문화권과 같이 개인적 또는 업무적으로도 선물을 주고 받는 것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 관리들과 친분을 쌓는 데는 간단한 선물이 때때로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전쟁 이후 뇌물도 성행하고 있으나 외국인이 직접 뇌물을 제공하는 것은 비즈니스를 망칠 수도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바이어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언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라크인은 과거 중동의 석유 부국으로 풍족하게 살던 옛 시절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적 잠재력과 문화

수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따라서 종종 대화 중에 인근 중동국가와 비교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이라크인도 다른 이슬람 국가와 같이 손님 접대를 즐기며, 첫 대면인데도 점심이나 저녁을 초대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경우 바이어의 호의를 가급적 거절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바이어의 집으로 초대받았을 때는 간단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답례 형식의 초대를 하는 것이 좋은 인간관계 형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초대를 받거나 상대방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음료(차)가 제공되면 적어도 한잔 정도는 마시는 게 좋다. 왼손은 불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음식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실 때는 오른손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에게 신발의 바닥이 보이도록 앉는 것은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상담 시에는 영어를 사용한다. 과거 오랫동안 영국의 통치하에 있었던 관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무원이나 비즈니스맨들은 영어에 능통한 경우가 많으며 영어로 의사소통 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나 관습에 관심이 있음을 알리고, 아랍어로 몇 마디 이야기할 수 있으면 심리적인 호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북부 이라크의 쿠르드계 는 쿠르드어와 쿠르드 국기를 사용하는 등 준 독립국가로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어설픈 아랍어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다. 상담 시 유의사항

중동지역 공통으로 직접 대면접촉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비즈니스 성공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특히 이라크인들은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여, 정기적으로 상대방을 방문해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비즈니스에 유리하다.

현재 이라크는 국내 전화 사정이 좋지 않아 통화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선약 없이 찾아가도 결례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반기는 편이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면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부처나 국영기업의 의전 (protocol) 파트를 접촉해 사전 약속을 해야 한다.

이라크 바이어들은 약속 시간 관념이 다소 불분명하다. 약속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지 않으며,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따지거나 화를 낼 경우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인내심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특히 이라크 전쟁 후 미군에 의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거나 전후 중고차 대량 반입으로 교통 정체가 많아 약속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라크 바이어들과 상담할 때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상담을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적 전화가 오면 전화를 받기 위해 대화를 중단하는 일이 흔하고, 상담 시 제기된 문제나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조급한 모습을 보였다가는 불손한 태도로 간주 받아 상담을 망칠 우려가 있으므로 항상 인내심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쌍방 간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하다. 이라크 바이어들은 거래선 물색 시 자본력보다는 상대방이 믿을 수 있는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전쟁 이후 이라크 시장은 우리 기업인들의 접근이 제한되어 생생한 시장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장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수요에 적기에 대처하기 위해 이라크 현지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라.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바이어와 상담이 잘 진행되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신용장(L/C AT SIGHT)에 의한 대금 결제를 원칙으로 삼고 DP 또는 DA 등에 의한 외상거래는 가급적 삼가는 게 좋다.

이라크 바이어들은 유럽 기업들과 오랫동안 거래해 오면서 외상 및 연불거래에 익숙해 처음 거래관계를 맺는 경우에도 USANCE 등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결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과 충분한 신뢰관계를 쌓기 전에는 신용장 거래방식을 채택해야 안전하다.

신용장 거래 시 L/C 개설은 두바이나 암만 등 신용 있는 외국은행에서 개설된 신용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 현재 TBI(Trade Bank of Iraq) 등 일부 이라크 은행이 신용장을 발급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신뢰도가 확립될 때까지는 인근국가 은행을 통해 개설된 신용장에 의해 거래하는 편이 비교적 안전하다.

이라크 바이어에게 독점 에이전트쉽을 부여할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바이어의 마케팅 능력을 검증한 이후 독점 에이전트를 지정해야 하나 통상 바이어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고 자신에게 독점 에이전트권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시장 지배력, 마케팅 네트워크와 판매능력을 중심으로 거래 바이어를 선별해야 한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 관련 애로사항

2003년 전쟁 이후 연합국 임시행정처 주도로 이라크 경제는 자유 시장경제체제로 전면 전환 중이며, 수입관세도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5%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시장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파 간 분쟁, 테러세력의 준동 등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해 시장 접근에 어려움이 많으며, 보안 경비가 추가되는 등 무역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한 무역거래에 관한 국제법규의 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별도의 기관도 아직 없어 상사 분쟁 시 변호사를 선임해 통상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해결하고 있다. 주요 분쟁사례는 제품하자 및 대금 납부 후 미선적이며, 계약 시 분쟁조항을 반드시 삽입해 중재자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미흡하여 한국산 가전제품 등 유명 브랜드 제품에 대해 중국산 위조 상품이 이라크 내 많이 수입, 판매되고 있으며, 이의 시정을 위해 변호사를 통해 클레임을 제기하고 품질관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으나 이라크 정부의 행정력 부족 때문에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나. 투자 관련 애로사항

이라크는 투자부문에서도 개방정책을 채택하여 2006년 12월 새로운 투자법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투자관련 하위 법규가 정비되지 않았으며, 관련 지원 기관도 구성되지 않아 투자유치 환경이 미흡한 수준이다.

게다가 이라크의 치안 불안으로 외국 투자가의 신변 위협이 크고, 정정이 불안하여 투자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이라크의 낮은 국가신용도로 투자 자금의 회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피하고 있다.

6. 이주정착 가이드

이라크는 2003년 전쟁 이후 매년 테러에 의한 사망자가 줄어드는 등 치안상황이 다소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외국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치안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연간 테러에 의한 사망자가 약 4,000명 수준으로 아직도 매일 10명 이상이 테러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테러세력의 공격을 미군 및 이라크 정부군이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해 외국인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고 있어 외국인이 이라크에 이주해 정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특히 외국인들은 높은 몸값을 노리고 테러세력들이 납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라크의 치안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우리 기업인들이 이라크 여행을 할 수 없도록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하여 이라크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수도 바그다드에는 대사관, KOTRA, KOICA 등 3개 공공기관이 주재하고 있고, 2011년 초에 STX중공업, 한국가스공사 등이 사무실을 개설하여 소수의 인원을 주재원으로 파견 중이다. 비교적 치안이 안전한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에는 우리 정부의 허가를 얻은 기업 및 기관들의 주재원들이 50여명에 달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활발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한국인의 이주 정착을 이야기할 단계로 보기에는 치안사정이 불안한 편이다.

7. 출장가이드

가. 기후

이라크 북부 고산지대 및 남부 걸프만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라크는 전형적인 대륙성 사막 기후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중동지역에서도 가장 더운 국가 중 하나이다.

바그다드 지역은 5월부터 10월까지 몹시 덥고, 건조하며 구름 한 점 없는 여름 날씨 동기간 중 최고기온이 기온은 섭씨 35~55도에 달한다. 그러나 남부 바스라 지역은 걸프만에 가까워 습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2월을 중심으로 한 겨울철에는 기온이 크게 낮아져서 가장 높은 지역이 낮 최고기온 섭씨 17도에 불과하며, 일교차가 커서 바그다드의 경우 아침 저녁으로는 한기를 느낄 정도로 춥다.

이라크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우기이나 강우량은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연 평균 강우량은 100~170mm에 불과하고, 이라크 북쪽 고원지대는 760~1,000mm의 비교적 많은 강우량을 보이고 있다. 최 북부 고원지대에는 겨울철에 눈이 쌓이기도 한다.

사막지역으로부터 강한 먼지바람이 주로 4월부터 6월 초까지, 9월 하순에서 11월에 걸쳐 불고 있으나 최근에는 일년 내내 부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사막의 기후변화, 이라크 내 대추야자나무 수의 감소 등을 주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먼지바람이 심하게 불면 항공기 이착륙이 불가능하여 항공편이 자주 결항되므로 출장 시 기후를 세밀히 체크해야 한다.

나. 시차/근무시간

1) 시차

우리나라와의 시차는 KST -6시간으로 한국이 자정(24:00)일 때 이라크는 하루 전 오후 6시(18:00)이다. 하계기간(4~9월)에는 2007년까지 서머타임제가 실시되었으나, 2008년부터는 서머타임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다.

2) 근무시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모두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휴일이다.

관공서, 국영기업, 은행 등 공공기관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시간은 08:30~14:30 이며, 목요일은 08:00~12:00 이다.

민간기업은 09:00~16:00까지 근무하며, 일반 상점은 10:00~17:00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KOTRA KBC는 주 5일(일요일~목요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08:00~16:00(라마단 기간에는 08:00~15:00)이다.

그러나 이라크는 치안이 불안하여 상가의 개점시간과 회사의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으며, 일부 회사의 경우 신변 안전을 위해 재택근무를 하기도 한다.

3) 주요 단위

미터제(metric system)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부 지방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도량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 1 dhirraa (Baghdad) = 74.5 cm
- 1 dhirraa(mosul) = 70 cm
- 1 feddan = 5hd = 12.36 acres
- 1 mann = 6 hogga = 24 okiya = 25kg
- 1 tughar = 20 wazna = 80 mann = 2 tonnes

다. 출입국/비자

1) 출입국 비자

한국인의 이라크 입국은 신변 안전을 이유로 2004년 이후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그러다가 2006년 8월 이후부터 암만 주재 진출기업 중 이라크 담당 지상사 들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한해 외교부 경유 NSC 승인을 얻어 단기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받았으며, 20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일정 기간 안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 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해 기업 진출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아프가니스탄 납치사건을 계기로 이라크에 대한 한국인의 입국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 연장되어 현재까지 제한되고 있다. 입국금지조치의 연장여부는 이라크의 치안사정 변화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라크인의 한국 입국비자는 2008년 말까지는 불법체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의 허가를 얻어야만 발급되었으나 2009년 들어 법무부 승인 없이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이 직접 발급하고 있으며 소요기간은 2-3일 정도면 충분하다.

2) 출입국 방법

□ 항공편 입국 시

암만, 이스탄불, 두바이, 아부다비, 테헤란 또는 다마스커스 등에서 이라크 항공(Iraqi Airway), 요르단 항공(Royal Jordanian Air) 등을 이용하여 입국 가능하며, 외국인은 이라크 입국 비자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에티하드 항공이 2011년 12월부터 두바이-바그다드 노선에 취항하는 등 최근에는 신규 항공사들의 취항이 늘어나는 추세로 그동안의 독점적 운항체제에서 선택이 가능한 체제로 변하고 있다.

이라크에 취항 중인 항공사 현황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트 거점	이라크 서비스지역	수송 내용
SkyLink	쿠웨이트	바그다드 및 주요도시	- 특수승객, 일부 화물 - 기종: AN-12기
Gulf Air	두바이	바그다드	- 승객 전용 - 바레인 경유
Turkey Airline	이스탄불	바그다드	- 승객 전용
Royal Jordanian	암 만	바그다드, 아르빌	- 승객 전용
Etihad Airways	아부다비	바그다드	- 승객 전용
Iraqi Airways	바그다드	바그다드, 아르빌, 바스라	- 승객, 일부 화물 - 암만, 다마스커스, 두바이, 테헤란, 카이로 등 운행
Jupiter Air	호주	바그다드	- 승객 전용 - 두바이 운행

주: 2011년 4월 기준

□ 육로 입국 시

항공편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항공편을 이용하고 있으며, 현지인들만 육로를 이용하고 있다. 육로를 통한 입국 루트는 북부의 경우 터키 이브라힘 알 칼릴(Ibrahim al-halil), 중부지역에서는 사우디 아르-아르(Ar-Ar), 요르단 트리빌(Tribil), 시리아 등, 남부에서는 쿠웨이트 사프완(Safwan) 등이 있으나 치안 관계로 [이스탄불-디야르바키르-아르빌] 루트만 주로 이용되고 있다.

터키를 경유해 이라크 북부지역으로 입국하는 방법은 터키 이스탄불이나 수도 앙카라에 도착한 후 터키 국내선을 이용해 터키 남동부 디야르바키르(Diyarbakir)에 도착하여 버스로 갈아타고 입국하는 경로로 이라크 국경까지 약 4시간 소요된다. 국경에서 쿠르드 지방 정부의 수도인 아르빌 까지는 약 2시간이 소요된다.

이라크 서부 고속도로(암만, 다마스커스 기점)를 이용하여 바그다드로 입국 시 저항 세력은 물론 노상 무장 강도, 절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외국인은 이용을 절대 삼가야 한다.

□ 항구를 통한 입국

이라크 내 국제 항구는 움카스르 및 바스라 두 곳으로서 [두바이-움카스르] 구간에 고속 페리선이 운행 중이나 [바스라-바그다드] 육로구간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절대 삼가야 한다.

라. 환전

이라크의 공식 통화는 디나르(Dinar)이며, 약어로는 통상 ID(Iraqi Dinar)로 칭한다. 이라크는 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달러화 교환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Money Exchange 라고 쓰여 있는 시중 환전소에서 쉽게 은행 환율과 차이 없이 환전이 가능하다. 2010년 이후부터는 달러당 1,180디나르 정도로 환율이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현지 상점이나 식당 등에서는 현지화뿐만 아니라 달러 표시 가격도 적혀 있는 경우가 많고 달러화도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액의 현지화를 교환할 필요는 없지만, 시중에서 물건 구입 시에는 가급적 디나르화로 환전하여 지불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이라크에서 신용카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마. 교통/통신

1) 교통

□ 한국과의 교통

2011년 4월 기준, 한-이라크 직항 편은 운행되지 않고 있으며 두바이, 아부다비, 이스탄불, 카이로, 암만 등을 경유해 입국이 가능하다.

바그다드 국제공항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국제 항공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바그다드-다마스커스, 바그다드-암만, 바그다드-두바이, 바그다드-아부다비, 바그다드-카이로, 바그다드-테헤란, 바그다드-이스탄불 등 중동노선이 운행 중이다. 현재 바그다드와 주요 유럽 도시간 취항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출발할 경우 두바이, 아부다비, 이스탄불, 카이로, 암만을 경유하여 이라크로 입국하는 방안이 가장 일반적인 입국 방법이다.

암만-바그다드 간 육로 이동은 이라크의 치안 상황 악화로 자국인만 일부 이용하고 있을 뿐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루트이므로 외국인의 경우 이라크 내 육로 이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국내 교통

이라크 내에서 택시는 정확한 지명을 알고 있거나 아랍어로 되어 있는 메모가 있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나 택시 운전사와 납치세력 간의 연계가 되어있는 경우도 있어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노란 택시는 지붕 위에 택시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거리에 따라 승객과의 흥정을 통해 요금이 결정된다. 요금은 2Km 정도에 약 1만 디나르 수준이나 택시에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

미니버스(주로 한국 베스타 승합차)가 바그다드 시내에 운행돼 구간별로 이용할 수 있으나 출발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노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버스 요금은 500디나르 수준이지만, 외국인이 이용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다.

렌터카 이용 시 기사를 포함할 경우 하루 이용료는 50~60달러 수준이며 기사의 영어 구사 능력에 따라 이용료는 달라진다.

□ 바그다드에서부터 장거리 출장 시

이라크 북부지역인 모술, 키르쿠크, 아르빌 등지를 출장 갈 경우, 바그다드에서 모술까지는 거리가 400km이며, 소요시간은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3시간 30분~4시간 정도이다. 편도 요금은 75~125달러 사이이다.
바그다드에서 키르쿠크까지는 거리가 300km이며, 소요시간은 3시간~3시간 20분 정도이고, 편도 요금은 60~100달러이다. 바그다드에서 아르빌까지는 거리가 470km이며, 소요시간은 5시간~5시간 30분이고, 편도 요금은 100~150달러이다. 바스라의 경우 바그다드에서는 500k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승용차로는 소요시간이 4시간 정도이고, 편도 요금은 120~150달러이다. 한편, 낫시리아의 경우에는 바그다드에서 400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소요시간은 4시간 정도이고, 편도 요금은 80~100달러이다.

2) 통신

□ 유선 전화

전쟁으로 파괴되었던 바그다드 지역 유선 전화망이 미국 국제개발청(USAID)의 지원 하에 일부 복구되어 시내 전화를 사용하고 있으나 통화 품질이 좋은 수준은 아니며, 시외 혹은 외부로의 국제전화는 통화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팩스 서비스는 거의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06년에 전화 회선 수가 인구 100명 당 4회선으로 2001년 2.9 회선에서 증가해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그러나 최근 휴대전화의 보급 확대로 유선전화는 보급속도가 낮아지고 있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인 도훅,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지역에도 유선 전화가 개통되어 있으며 연결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키르쿠크 지역도 지방 유선전화가 개통되어 바그다드까지 연결되어 있다.

이라크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0082-지역번호-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현재 국제전화 서비스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 이라크로 전화할 경우 001(2)-964-1(유선), 001(2)-964-79(휴대폰, 이라크나의 경우)-전화번호를 차례로 누르면 된다.

□ 휴대 전화

2004년 1월 초부터 ORASCOM에 의해 휴대 전화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 현재 Zain, Asia Cell, Korek Telecom 등 3개사가 2007년 8월부터 전국적인 서비스망을 갖고 운영 중이며, 이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Zain : 쿠웨이트의 Zain Group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 이라크 내 최대 모바일 사업자로 당초 MTC Atheer란 브랜드로 2003년 10월 사업권을 획득한 후 2004년

8월부터 이라크 남부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다가 2007년 8월 이라크 정부의 15년 장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 시 선정되었으며, 입찰 과정에서 포기한 이집트 Orascom의 Iraqna를 인수함으로써 이라크 내 최대 업체가 되었다.

○ Asia Cel l : 공식명칭은 Asiacell Telecommunications Co., Ltd. 로 Zain에 이어 2번째 모바일 사업자인 Asia Cell은 이라크에서 가장 오래된 업체이다. 지난 1999년 쿠르드 술래이마니아 지역에 국한된 서비스를 시작한 Asia Cell은 2003년 10월 MTC Atheer 및 Iraqna와 함께 이라크 모바일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쿠웨이트의 Wataniya Telecom사 주도 콘소시엄의 재정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Wataniya Telecom사는 현재는 카타르의 Q-Tel이 운영하고 있다). 비록 사업 시작은 이라크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2005년 1월부터 통신망 확충 투자를 시작하여 2007년 8월에 전국적인 사업자로 재선정되었다.

○ Korek Telecom : 3번째 모바일 사업자로 2000년 11월부터 쿠르드 지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2007년 8월, 이라크 정부로부터 이라크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15년 장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전화 연결이 자주 끊기는 등 통화 품질이 매우 열악한 편이며, 바그다드 시내를 벗어나면 전화 송수신이 어려울 정도이나, 해외 로밍, SMS, 음성사서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인터넷 사용환경

후세인 정권 하에서는 인터넷 접근이 정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됐으며, 극히 일부 이라크인 들만 이용이 가능했다. 2002년에 이라크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2만 5,000명 수준으로 아주 낮았으나 2003년 이후 이라크 독자적인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Uruklink가 서비스를 시작하고, 이어 몇몇 외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면서 경쟁환경이 조성되어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되고 있다.

2006년에 인터넷 사용인구가 36만 명에 달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선 인터넷이 주로 이용되고 있고, 주요 인터넷 사업자는 Uruklink, ALJAZEERA TELECOM 등이다. 인터넷 이용료는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다양한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보다 저렴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고, 서비스 제공 회사별 인터넷 요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텔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 우편발송

국내우편은 일반 우체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국제 우편도 속달우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용 가능한 특사우편 업체 및 서비스내역

회사명	서비스 유형	요금 (BaghdadKorea)		배달 기간 (일)	연락처
		0.5 kg	1 kg		
ARAMEX	Express Mailing	US$ 35	US$ 55	13~14	Al-Kharradeh/Al-Wehdeh neighborhood Zoqaq 904 Street 6 Building 15, Phone: +964 (1) 7193638 Mobile: +964 7901 913625 Email: Baghdad@aramex.com
	Fright / cargo (45kg and more) BGW-ICN	US$ 12 / kg		10~12	
DHL	Express Mailing	US$66 Doc	US$88 Doc	3~4	Baghdad office International Cargo Village Branch Representative: Palestine International Hotel Phone:+964(1)7470875/7470876 Mobile:+964 7901 909520 Email: bgwexb@dhl.com
		US$90 Goods	US$112 Goods		
	Fright / cargo (50kg and more) BGW-ICN	US$ 23 / kg			
FEDEX	Express Mailing	US$43 Doc	US$ 58 Doc	4~5	Branch Representative: Al Hamrra Suite Hotel Hay al-Jamiaa / Al-Jadriah / Dist. 913 - Lane 10 Phone:+964(1)7190413/7190426 Mobile:+964 7901 585297 Email: fedxalhamra@yahoo.com
		US$60 Goods	US$ 82 Goods		
	Fright / cargo (45kg and more) BGW-ICN	US$ 20 / kg			
TNT Express	Express Mailing	US$60	US$ 80	4~5	Kharradeh, Al-Watheq Sq., Hay Wihada, 52 St., opposite police station Dept. Phone: +964 (1) 719 5985 Mobile: +964 7901 9915357 Email:alhamadinternational @yahoo.com
	Fright / cargo (45kg and more) BGW-ICN	US$ 14 / kg		10~14	
Iraqi Telephone and post Office	Fright Cargo BGW-ICN (Expressparcels)	US$ 30 / kg		14~15	Republic of Iraq Iraq Telephone & Post office Company Baghdad Post Office Center / Parcel Dept. Phone: +964 (1) 5372817 /5372829 (Complete recipient address Should be mentioned to be Acknowledged by them)

다. 공항(Airport)

국제공항은 바그다드, 바스라, 아르빌, 술레이마니아 등 4곳이고 키르쿠크와 모술에는 그보다 규모가 작은 공항이 있다. 최근 이라크 시아파의 성지인 나자프 국제공항도 개장했다.

이라크 내 모든 공항은 지난 수년간 유지보수 중단과 장비 부족으로 노후화 되었으며 전쟁 이후에는 공항 운영인력의 부족 속에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아르빌 공항은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공항운영 전반에 걸쳐 자문을 받고 있다.

1946년에 창설한 국적 항공사 Iraqi Airways는 2003년 전쟁 직전까지 13년간 국제선 운항을 중단했다가 2004년 11월부터 요르단, 시리아 노선 운행을 재개했으며 점차 운행 노선을 늘려서 2007년 6월 기준, 추가로 두바이, 테헤란, 카이로 등 국제 노선과 바스라, 아르빌 등 국내 노선을 운행 중이고 유럽 주요 도시로의 운행도 검토 중이다. 이라크 정부는 노후화된 항공기를 교체하기 위해 미 보잉사와 신형 비행기 구입 및 임차계약을 2008년 초 체결해 항공사 정비에 힘쓰고 있다.

국적기인 이라크 항공 이외에 바그다드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는 전세기 사업자는 모두 5개사로 이 중 3개사가 요르단 암만-바그다드 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쿠웨이트-바그다드 1개사, 바레인에 허브를 둔 DHL사 등이 있다. 암만 노선의 경우 요르단 항공, 에어서브(AIR SERV INT'L), HESTON/SAFAIR 3개사가 운행하고 있고 쿠웨이트의 경우 스카이링크(SKYLINK)가 전세기를 운영하고 있다.

공항 재건 프로젝트는 미 국제개발처(USAID)가 벡텔사에 발주했으며 공항 운영은 SkyLink AIR와 Logistic Support가 담당하고 있고, 바그다드 및 바스라 영공 항공 안전 및 관제 업무는 CPA가 맡았으나 임정 출범 이후 이라크 교통부로 이관됐다.

바. 교통(Transportation)

이라크로 반입되는 물자는 일일 평균 약 6만 5천 톤으로 이는 군수물자를 제외한 순수 민간 반입량만 계산한 통계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UN산하 UNJLC(참고: United Nations Joint Logistics Center: www.unjlc.org) 자료를 참조하면 된다.

이라크 행 화물은 남부 움카스르 항구, 터키, 요르단 및 시리아 등 4개 지역을 통해 각각 비슷한 물량이 반입되고 있는데 요르단 국경 트레빌 세관을 통한 물량이 타 세관보다 약간 많은 일일 약 1만 6천 톤 정도이다. 참고로 움카스르를 비롯한 남부지역 항구로 반입되는 물량이 일일 1만 5천 톤, 터키 실로피·자코 국경이 1만 5천 톤, 그리고 시리아 국경을 통해 1만 3천 톤씩 들어오고 있다.

□ 도로

이라크의 도로 총 연장은 약 2만 4천 마일로 이 중 약 85%가 포장도로이다. 노면관리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대부분 1970~8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이후 유지 보수를 받지 않았다. 교량, 특히 바그다드 주변의 교량은 군 장비 및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해 많이 노후화되어 대대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한 상태이다.

주요 간선도로는 요르단 접경지역의 서부 국경에서 바그다드를 잇는 고속도로, 바그다드↔바스라 고속도로 등이며, 이들은 모두 왕복 6차선 도로이다. 한편, 바그다드↔바스라 노선의 경우 바스라 북쪽 94마일의 구간이 공사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상태이다.

간선도로보다 한 단계 낮은 주요 도로는 왕복 4차선으로서 주로 군사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2차 도로는 비포장 상태이거나 대대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

전국에 걸쳐 1,100개의 교량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시급한 유지 보수를 필요로 하는 3개 교량은 Al Mat, Tikrit, Khazir 다리이다.

주택건설부(MOHC) 산하 국영 도로공사(SCRB)가 고속도로 및 국도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 철도

이라크의 철도는 총 5개 노선으로서 107개 역이 있으며, 총 연장은 1,525마일 정도이나 그 중 절반 정도는 시급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루 평균 10회 운행하는 정도이며, 약 150량의 기관차, 150량의 승객수송용 객차, 8,000량의 화물용 평상 트레일러를 보유하고 있으나 정상 운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개·보수가 절실한 상태이다.

- ○ 바그다드-바스라-움카스르 노선
- ○ 바그다드-모술-시리아 노선
- ○ 바그다드-알 라마디-알 콰임 노선
- ○ 알 콰임-아카샤트 노선
- ○ 키르쿠크-바이지-하디사 노선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노선은 바그다드-바스라-움카스르 노선으로 움카스르 항구로부터 반입되는 물자를 바그다드를 포함 전국 각지에 수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 노선은 1950년대 이후 한 번도 제대로 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노후화되었으며 벡텔사와 이라크 철도공사(IRR)가 72km 상당의 유럽형 철도를 신설 추진한 바 있다. 이 노선이 완공되면 하루 30회 기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 항구

이라크의 항만은 모두 6개이나 수심이 얕아 움카스르 항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국제 항구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6개 중 3개의 항구는 샤트알 아랍 수로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대적인 유지 보수를 하지 않고선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샤트알 아랍 수로는 수심이 얕을 뿐 아니라 침적토, 치안 불안, 거룻배용 가교(架橋) 등의 장애가 있어 대형 선박 이 이용할 수 없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있다.

바스라항은 1980년대 이란-이라크전 이후로 계속 폐쇄되어 왔으며 움카스르 항은 1991년 1차 걸프전 때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정상 개항 중이다. 움카스르, 바스라 항구 모두 대대적인 유지보수, 크레인 설치, 준설작업이 필요하다.

움카스르 항구의 경우 연합군으로부터 항구 운영권을 인계 받은 이라크 항만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안전 때문에 비교적 치안이 확보된 항구 북쪽 역에서 대부분의 하역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라크 항만청은 안전 조치의 하나로 범선의 움카스르 항구 출입을 제한해 이들 범선은 규모가 작은 항구인 코르 알 주바이르(Khor Al-Zubayr) 항구나 샤트알 아랍 수로에 위치한 아부 풀루스(Abu Floos)항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코르알 주바이르 항구는 Maersk가 운영하는데 식료품을 중심으로 2004년 7월 이후 물동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항구 주변이 이렇다 할 마을이나 시설물이 없는 고립된 지역이어서 치안을 유지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움카스르 항구는 5m 흘수(Draft) 선박 12척이 정박할 수 있고, 21개 계류장(berth)을 갖추고 있다. 두바이↔움카스르 항구 간에는 페리선이 주 3회 운항 중이며 승객, 차량 및 일반 화물까지 운반하고 있다. 움카스르 항에는 약 17.5만 평방 피트의 창고와 80만 평방 피트 규모의 옥외 하역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로와 도로로 연결되어 있다. 양곡의 경우 기술적으로 한 번에 약 6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샤트알 아랍 수로를 따라 소규모 선착장이 줄지어 만들어져 있는데 항만청이 이들 소규모 선착장을 대부분 폐쇄함에 따라 수로에서 비교적 부두 시설이 좋은 편인 아부 풀루스 항구로 물량이 몰리고 있다. 이라크 항구를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주로 식량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데, 움카스르 항구는 일일 약 1만 톤의 식량을, 코르 알 주바이르 항구는 약 500톤의 식량을 각각 처리하고 있으며, 아부 풀루스 항구는 이보다 훨씬 적은 물량을 하역하고 있다. 이 세 항구 모두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수 있다.

미국의 Stevedoring Servicies사가 초기 항만 운영지원 계약을 체결하였고, 벡텔사는 항만 전반의 복구 프로젝트를 USAID와 체결하여 이라크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oil 터미널은 Al-Baker, Khawr Al Amaya 두 곳으로서 항만 관리는 이라크 교통부가, 터미널 관리는 석유부가 맡고 있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치안사정으로 인해 바그다드에 투숙할 만한 호텔은 현재 그린존 내에 위치한 라시드 호텔 정도에 불과하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 보니 서비스가 엉망이며, 예약 시 호텔비 전액을 선납해야 한다.

○ Rasheed Hotel 연락처
- Public Relations & Sales Manager : Mr.Ali Al Hashimi
- Tel. : +964 7901354722
- E-mail : a6L8i@yahoo.com
- 요금 : 싱글 250불, 트윈 300불 수준(조식 포함, 결제는 현금만 가능)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아르빌에는 아래 호텔이 이용할 만 하다.

○ Erbil International Hotel
- Tel. : +964 66 2234460
- E-mail : reservation@erbilinthotel.com
- Website : www.erbilinthotel.com
- 요금 : 싱글 250불, 트윈 300불 수준

○ Khanzad Hotel & Resort
- Tel : +964 66 2245273
- E-mail : info@khanzadresort.com
- Website : www.khanzadresort.com
- 요금 : 싱글 250불, 트윈 300불 수준

이 밖에도 치안상 현재 이용이 곤란하지만 바그다드 시내 여타 호텔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Babylon Hotel
- Tel. : +964 1 7781964
- E-mail : gilgamish@uruklink.net
- 요금 : 싱글 100불, 트윈 150불 수준
- 기타 : 자드리야 지역에 위치, 총 객실 수 300개

○ Coral Palace Hotel
- Tel. : +964 1 7198803
- E-mail : coralp_h@yahoo.com
- 요금 : 싱글 100불, 트윈 150불 수준
- 기타 : Hay al Wihda, Al-Wathiq sq지역. 총 객실 수 30개

2) 식당

바그다드에는 한국식당이나 일식당이 전무하다. 이라크 치안상황 악화로 외국인이 안전지대 밖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며, 아래 내용은 주로 현지인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식당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통 점심은 13:30, 저녁은 19:00 이후에 시작되고, 고급 식당들은 2003년 이후 가격이 올라 보통 1인당 $ 10 이상 소요된다. 현금 결제만 가능하며 현지화가 기준이나 달러를 받기도 한다.

전후 치안상황 악화로 심야 영업을 하는 곳은 거의 드문 편이며, 밤 10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식당이 문을 닫는다. 서양인이 자주 출입하는 식당이나 유명 식당은 테러 공격 대상이 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라마단 기간 중에는 야간에만 식당을 오픈 한다.

이라크 현지 음식은 짠 편이어서 비교적 한국사람 입맛에 적합하지만, 장기 출장 시에는 볶음 고추장이나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을 휴대하면 투숙 호텔에서도 직접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 일반 호텔에서는 보통 가스 오븐, 냄비 등을 갖추고 있어 3~4인용의 작은 전기밥솥 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 유명 중국 식당
- 사둔 스트리트: 바그다드 국립극장 옆, 중국인 요리사 있음.
- 호텔 함므라: main dish 하나에 6~7불. 비교적 맛이 있음.
- 호텔 바빌론: 함므라 호텔과 비슷한 가격이나 맛은 보통임.

이라크 전통 음식으로는 꾸지(양고기), 잉어 고기요리(마쓰코프), 닭고기(디쟈지) 요리가 유명한데 닭고기는 보통 길거리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1마리에 약 8달러이다.

주요 식당(바그다드 내 First class 식당)

연번	식당명	위 치(주소)	전화번호(+964-1-)
1	Al Matheef	Abu Nwas St.	8878725
2	Al Sa'ah	Mansoor 14 ramadan St.	5432338
3	Al Finjan	Hay Al Wihda, St. 62	7174473
4	Al Qasr Al Sharqi	Al Wathiq St.	7182886
5	Al Istoora	Arasat Al Hindia	7186729
6	Al Tahoona		
7	Al Hamraa	Muaskar Al Rasheed St.	7190809
8	White palace	Al Masbah	7194608
9	Al Bakoora	Al Nidhal St.	7195688
10	Al Zaytoon	Abu Nwas St.	7192849
11	Burj Al Umaraa	Hay Al Wihda, 52 St.	7199875
12	Khan Marjan	Al Rasheed St.	8884077
13	Shaheen	Al Masbah	7192064
14	Shat Al Arab	Soq Rajwan	7188016
15	Qasr Al Sunober	Al Sadoon St.	7186808
16	Al Meezan	Arasat Al Hindia	7170625
17	Azad Kamal	Al Sadoon St.	7198534
18	Al Mazraa	Karrada Meriam	8842451
19	Al Bait Al Thaahbi	Al Masbah	7186993
20	Al Sayer	Al Mansoor 14 Ramadan	5415988
21	Al Minwar	Karrada Dakhil	7188397
22	Al Shummo'	Al Sadoon St.	7181791
23	Al Sahan	Al Sadoon St.	7188999
24	Al Azayim	Al Sadoon St.	7192058
25	Al Baho	Al Nidhal St.	8871264
26	Abo Laith	Al Sadoon St.	7199200
27	Al Sindbad	Karrada Kharij	7763681
28	Al Naqqar	Palestine St.	
29	Al Saee	Palestine St.	7729823
30	Al Tbeekh	Al Sadoon St.	8852917
31	Al Jadda	Al Mansoor	5420488
32	Al Marah	Hay Al Wihda	7189309
33	Al Hasnaa	Al Sadoon St.	7186441
34	Al Khayzaran	Al Aadamia	4222010
35	Al Sahal Al Akhthar	Al Aadamia	4222666
36	Spinich	Al Sinaa St.	7181054
37	Al Yanboo	Al Masbah	7197668
38	Abo Husam	Al Rasheed St.	8888859
39	Al Shadoran	Al Sadoon St.	7192396
40	Al Mawal	Palestine Str.	4156856
41	Al Hudoo	Al Sadoon St.	7183448
42	Al Taybat	Al Sadoon St.	7172720
43	Al Anab	Al Mansoor	5432361
44	Al Gareeb	Al Nidhal St.	7181189

연번	식당명	위 치(주소)	전화번호(+964-1-)
45	Al Qubtan	Arasat Al Hindia	7182711
46	Al Marzooq	Al Aadamia	5427499
47	Nabeel	62 St.	7618742
48	Al Awael	Al Taharyat Sq.	7186125
49	Al Damya	Baghdad Al Jideeda	7625940
50	Al Qalaa	Arasat Al Hindia	7191815
51	Babeesh	Arasat Al Hindia	7768247
52	Bayara	Al Bataween	8850608
53	Khaliat Al Asal	Al Nasir Sq.	8884077
54	Khan Dijaj	Al Sadoon St.	7198140
55	Robyan	Al Sinaa St.	7199754
56	Rukn Al Azayim	Al Mansoor	5432409
57	Shmesani	Karrada Out	7761973
58	Sadr Baghdad	Hay Sumer	7127401
59	Abdullah	Alawi Jameela	8835581
60	Fawanees	Al Sadoon St.	7182426
61	Qamar Al Zaman	Arasat Al Hindia	7193594
62	Kabab AL Mathaq	Palestine St.	4164286
63	Karawan Kabab	Karrada Out	7189783
64	Marhaba	Al Wathiq St.	7187412

아. 관공서 관행

이라크의 관료조직은 권한의 하부이양이 미흡하여 사소한 건도 장관 결재를 받아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책임 회피성 관료주의가 만연해 있다. 공문서 하나를 발급받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근거서류를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처음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석유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부부처 건물들은 아직 제대로 갖추지 못해 좁은 임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공서 사무실 방문 시 대체로 근무공간이 협소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근무 태도도 상당히 느슨하다.

치안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서인지 중앙 부처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상당 수준이며, 뇌물과 선물 수수가 관행처럼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라크정부는 공직자 부패 수사처를 설립해 고위공직자의 부정 부패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에 착수하는 등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근절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자. 공휴일

이라크 2011년 공휴일

연번	월	일	이슬람력	구분
1	1	1		신년
2	1	6		국군의 날
3	2	15		모하메드 탄신일
4	3	21		청명(Spring Day)
5	5	1		노동절
6	7	14		혁명기념일
7	8	30	Eid-Al-Fitr	Islam Feast Days(3일간 연휴)
8	11	6-9	Eid-Al-Adha	Big Islam Feast
9	11	26	Muharram 1	Al-Hijra(Islamic New Year)
10	11	26	Muharram 10	Ashura
11	12	25		크리스마스

차. 유용한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주 이라크 한국 대사관	964-7901259756 964-7902868799	n/a
KOTRA 바그다드 KBC	964-1-776-1554	n/a
KOICA 바그다드 사무소	964-7703961979	n/a

카. 여행 시 유의사항

자살 폭탄 테러, 외국인에 대한 납치·살해 및 테러가 지속되고 있어, 2004년 6월 김선일 납치 피살 사건 이후부터 한국인의 이라크 지역 입국이 금지됐다.

2006년 8월 이후부터 암만 주재 이라크 담당기업 지상사들은 이라크 북부 쿠르드 지역에 한해 외교부 경유 NSC 승인을 득하여 단기 방문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2007년 2월 이후부터는 여권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일정기간 내의 복수 입국 허용 및 동일 사안 추가 입국 허용 등을 진출 허용 시 명시해 기업진출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한편, 여행 금지 조치가 제한적으로 완화됐지만 이라크의 치안 상황이 일거에 좋아질 수 없을 것인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 없이 바그다드 시내는 물론 위험한 시 외곽 지역으로의 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007년 8월 이후 이라크 입국 제한을 더욱 강화해 입국 허가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이후 계속 연장되어 현재까지 제한되고 있으며, 향후 연장 여부는 이라크의 치안사정 변화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다만 북부 쿠르드 지역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몇몇 우리 기업들이 건설 부문, 유전개발 프로젝트 등에 진출하여 주재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매일 여러 건의 테러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다중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은 절대 삼가야 할 것이며, 테러 다발지역인 미군 시설물 근처, 사드르시티, 라마디-팔루자 간 고속도로 등지에 대한 방문은 절대 삼가야 한다. 미군 순찰차량으로부터도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 관광명소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이라크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으나, 이라크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관광목적이나 사업상 명목으로도 한국인의 이라크 입국이 엄격히 제한된다.

1) 바그다드

□ 이라크 박물관(Iraq Museum)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체계적으로 관람할 수 있는 박물관이며 선사시대, 수메르 도시 국가 시대, 악카드, 고대 바빌로니아, 앗시리아, 사산조, 압바스조 등의 유물이 시대별로 잘 분류되어 있었고 우르(Ur)에서 출토된 장신구나 다른 유물들도 소장되어 있었으나 2003년 전쟁 시 대부분 약탈되고, 훼손되어 이전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다.

□ 칸마르잔(Khan-Marjan)

중세시대 바그다드 건물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건물 중 하나이다. 과거 대상들의 숙소로 사용됐으며, 1935년 복구되어 한때 박물관으로 사용된 적이 있으나 현재는 외국인 용 관광 레스토랑으로 개방되고 있다.

2) 바그다드 교외

□ 바빌론 (Babylon)

Baghdad 남쪽 90km 지점에 있으며, 고대 바빌로니아 왕국의 수도로 약 4,000년 전에 흙, 벽돌로 축성됐다. 발굴 시에는 성벽의 하단부 등 일부만 남아 있었으나 1980년대에 성벽을 복원했다.

□ 바벨탑

성서에도 언급된 유적지로서 바빌론 유적지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는 주춧돌의 흔적만 남아 있다.

□ 사마라 달팽이 탑

바그다드 북쪽 120km에 위치하고 있는 이라크의 주요 성지 중 하나이다. 사마라에는 높이 50m의 나선계단으로 이루어진 달팽이 탑이 있으며, 첨탑은 그 당시 제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8.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Erbil International Fair
  - Period : 24-27, October 2011
  - Venue : Al-Mashraq Street, villa#2, Habiab, Ankawa, Erbil, Iraq
  - Email : info@ifpiraq.com

- Baghdad International Fair
  - Period : 1-10, November 2011
  - Venue : Al-Mansour, Baghdad, Iraq
  - Email : info@iraqifair.com

9. 유관기관 웹사이트

☐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Iraq

- Baghdad: www.baghdadchamber.com
- Erbil: www.erbilchamber.org

☐ Ministries in the Iraq

- Electricity: www.moelc.gov.iq/default_en.aspx
- Trade: www.motiraq.org
- Industry and Mining: www.industry.gov.iq
- Oil: www.oil.gov.iq
- Communication: www.iraqimoc.net
- Planning: www.mop-iraq.org/mopdc
- House building & construction Work: www.moch.gov.iq/eindex.htm
- Water: www.mowr.gov.iq/english
- Education: www.moheiraq.org
- Agriculture: www.moagr.com
- Foreign Affairs: www.mofa.gov.iq/index.aspx
- Transport: www.motrans.gov.iq
- Baghdad Municipal Government: www.mayoralty-baghdad.com